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Asian America's History of Segregation

1882, Congress passed Chinese Exclusion Act, the only U.S. law to prevent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on the basis of race, restricting Chinese immigration for the next 60 years. Fueled "Chinese Must Go" sentiments; decline in Chinese immigration from 40K in 1882 to just 10 in 1887.

시카고에서는 아시아 역사 교육이 법안으로 통과됐지만 매사추세츠주는 여전히 냉담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시민협회 주최로 개최된 조세핀 김 교수의 아시아의 차별의 역사 강연의 한 장면

왜 아시아 역사는 MA학교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나?

아시아 영웅, 불공정과 대적, 대의명문 혁명가로 묘사 인해 다른 사람만 배우고 우리는 배우지 못해 심리적으로 위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라틴에 재학중인 중국계 티파니 루오스(17)는 지금껏 아시아어메리칸 역사에 대해서는 단 두번만 다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는 일본인 감금과 1882년 중국인 배제법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었다. 그 외에 아시아역사는 학교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올해 12학년이 되는 그는 "사실상 아시아인 역사교육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전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울 뿐 결코 우

리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다" 고 밝혔다. 보스톤글로벌은 6월 16일 아시아어메리칸과 미국 역사에의 공헌, 아시아 문화에 대한 내용은 미국내 사회학 커리큘럼이나 교과서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보도했다. 매사추세츠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학교에서 다루게 되는 경우 아시아인 어메리칸은 때로 국외자 >>7면으로 계속

코로나19 검사결과 미소지시 한국행 항공기 탑승 불가

출발일 72시간내 검사결과 도출된 음성 판정서 검사는 NAAT(PCR, LAMP, TMA) 방식이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국에서 델타 변이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규정이 더욱 강화됐다. 한국 정부는 7월 15일 목요일부터 한국인 및 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결과가 발급된 음성판정서를 제출해야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코로나 검사는 반드시 NAAT 방식(PCR 등)이어야 한다. 다만, 부모와 동반하는 6세 미만 어린이와 장례식 참석용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한국인은 예외적으로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없어도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고 한국에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한국으로 입국시 제시하는 코로나19 검사결과(음성결과)는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검사방법, ④검사일자, ⑤검사결과, ⑥발급일자, ⑦검사기관명이 반드시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KATHY SONG PREMIER REALTY GROUP

고객만족도 평가 5/5을 보여주는 고객 최우선 서비스를 약속 드립니다.

주택, 상가, 비즈니스 매입 매매 상담 환영합니다.

Call Kathy Today 413.313.4165
Kathysong2019@gmail.com

PREMIER REALTY GROUP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Korea licensed
Mul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2021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코로나19 검사결과 미소지시 한국행 항공기 탑승 불가

▶▶1면에 이어서
재되어 있어야 한다.

보스턴총영사관은 한인들이 영사관에 문의하는 내용 대부분이 검사방법 및 발급일자과 관련된 질문이라며 이를 자세히 설명했다.

검사는 반드시 유전자증폭검출방식(NAAT)이어야 한다. 미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PCR 및 LAMP, TMA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속검사 방식(Rapid Testing)은 대부분 NAAT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항원(Antigen), 항체(Anti-body) 검사 역시 인정받지 못한다.

72시간 규정은 코로나19 검사시점

(Testing Date and Time)이 아닌 판정결과 도출시점(Result Date and Time)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항공기 출발 "날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검사결과를 발급받아야 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항공기 출발이 8월 5일 14시라면, 출발 "일" 72시간 이내인 8월 2일 00시 이후 음성판정을 받아야 한다. 중간 경유지가 있다면 처음 출발지점이 기준이다. 만약 보스턴에서 디트로이트를 거쳐 한국에 입국할 경우, 보스턴-디트로이트 구간 항공기 출발 "일" 기준 72시간내 검사결과

를 발급받아야 한다.

총영사관은 일부 미국 항공사들이 국내 방역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출발시간 기준 72시간내 채취(Testing 또는 Collection Date and Time)된 음성결과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항공사는 우리나라 규정을 설명해도 항공사 본사 지침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어 체크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매니저 또는 관리자와 상담하고, 총영사관에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hsb@bostonkorea.com



한미노인회 आयु회, 신청마감 17일까지

21일 셸리스베리 비치 주립유원지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한미노인회는 7월 21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셸리스베리 비치 주립유원지에서 आयु회를 개최한다. 참가신청은 17일 토요일까지 한미노인회에 해야 한다.

노인회는 आयु회 당일 북부 보스턴 교회 주차장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할 계획이며 오후 3시 주차장에 도착한다.

이날 점심은 한인회 이영애 회장이 준비한다. 참가 노인회원들

은 기념품도 선물 받는다.

노인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던 회원님들과 2021년 사랑방 첫모임을 야외에서 갖는다"며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신청 전화번호는 윤철호 회장 (978)902-8305, 이기환 이사장 (781)270-4627, 김순호 부회장 (781)933-6490, 한순용 부회장 (978)835-9168

bostonkorean@hotmail.com

<단신> 진실화해 규명 사건 신청서 접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2022.12.9까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스턴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물냉면 14.95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SPICY 비빔냉면 14.95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턴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매사추세츠 백신접종자 79명 사망, 300여명 입원

백신 접종자 감염율 극히 낮지만 여전히 79명 사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비율은 0.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현재 총 4백195천844명의 백신 접종완료자 중 돌파감염(breakthrough)의 사례는 4천450명이었다고 보건부는 밝혔다. 비율로는 0.1% 즉 1천명중의 한명 꼴로 감염된다.

보건부는 성명서를 통해 “돌파감염의 사례는 극히 낮으며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더 낮다”고 밝혔다.

4천여명중 병원에 입원한 감염자는 303명이었고 단 79명만 사망했다. 입원확률은 0.0072%이며 사망확률은 0.0019%이다. 그럼에도 매년 동부말

뇌염(EEE) 등으로 사망한 것이라 하면 여전히 많은 수라고 볼 수 있다.

보건부는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3가지의 백신은 모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보호율이 높으므로 최고의 방법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고 모든 자료를 종합한 결과 증명됐다”고 백신 접종을 강조했다.

매사추세츠는 12일 현재 총 4백27만3천587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보건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특히 실내인 경우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아픈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브리감앤위민스병원 미생물학 및 감염과의사인 에릭 루빈 박사는 “백신은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 여전

히 일부 접종자들은 감염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에서나 실제생활에서 백신은 정말 훌륭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BU메디컬센터의 데이비드 해머 박사도 “백신은 정말 뛰어나다. 백신은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무증상, 또는 증상 감염을 대폭 낮춘다. 중병을 감소시키지만 결코 100% 예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감염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하버드 TH 찬공중보건대학 하워드 고 교수는 “백신은 단지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뛰어난 효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델타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훨씬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증가세 확인

7일 평균확진자수 지난주보다 3배 증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지난주부터 증가 가능성은 보였던 매사추세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이번 주에는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14일 현재 7일 평균 확진자 수는 141명으로 늘어 지난 28일 52명이던 것에 비해 3배 가량 늘었다. 7일 평균 확진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백신 접종율이 60%를 넘는 상태에서 이 같은 수치는 2020년 첫번째 코로나 대유행 및 겨울 두번째 대유행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번 매사추세츠 감염자 재확산이 미국내 전체 재확산과 맞물려 있어 매사추세츠 자체 노력만으로 통제가 여의치 않다는 의견이다. 이번 미국내 재확산은 감염속도가 빠른 델타변이, 백신 접종율저하, 7월 4일 모임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보스톤글로벌보는 14일자 보도에서 보스톤의 주요 감염병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통해 이번 바이러스 재확산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점검해 보았다.

브리감앤위민스병원 감염병 전문의 대니얼 쿠리츠크스 박사는 “어떤 증가도 우려스럽다”고 밝히고 다만 “감염자 수가 아주 낮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신규 확진자들이 젊은층이기 때문에 병원입원 등의 큰 타격은 주고 있지 않다고 그는 덧붙였다.

보스톤칼리지 국제공중보건프로그램소장 필립 랜드리건 박사는 “비록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지난 몇 달 전에 비해 정말 낮은 수치”라며 이는 “매사추세츠가 미국내 백신 접종에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랜드리건 박사는 “백신은 아주 효과적이며 심지어 델타변이에도 효과적이다. 현재 감염은 백신 비접종자들에게서 발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스톤메디컬센터 데이비드 해머 박사는 “우려스럽다. 미국내 전체 지역에서 확산이 시작되고 있어서 매사추세츠에도 바이러스가 퍼지

▶▶5면으로 계속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자가진단 코로나 테스트 키트 판매 합니다. 개당 \$50”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평통 <한반도 평화 통일> 주제로 오행시 공모전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오은희 평통간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회장 한선우)가 2021년 오행시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인 2021년 오행시 공모전은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개최된다. 공모전의 응모기간은 7월16일부터 7월28일 오후 5시까지이다.

한선우 회장은 “전세계가 코로나로 힘겹게 보내기 시작했던 작년 한 해 동안 보스톤 평통이 개최한 많은 온라인 행사중 처음으로 진행했던 평화통일 사행시 공모전이 열기가 뜨거웠다고 전하며 힘든 시기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꿈꾸게 하는 기쁨을 올리는 오행시 공모전으로 많은 교민들의 참여와 함께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응모자는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통일” 두개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일인당 한 작품의 창작 오행시를 bostonnuac2020@gmail.com에 보내 응모할 수 있다. 응모시에는 창작 오행시와 함께 수상작 당선시 상금수령을 위한 이름과 연락처를 명기해야 한다. 공모에 대한 문의는 김도윤 준비위원장(413-461-0138)에



게할 수 있다. 입상자는 7월30일 보스톤코리아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제목: <한반도 통일>, <한반도 평화> 오행시 보내실 곳: 이메일 bostonnuac2020@gmail.com 두개의 제목중 택일. 일인당 1개의 창작오행시 응모가

능. 응모시 상금수령을 위한 연락처(주소 및 영문 이름) 반드시 명기, 관련정보 미기입시 상금 수령 불가 응모기간: 07/16/2021 ~ 07/28/2021 오후 5시까지 상금: 1등 1명 \$100, 2등 2명 \$50, 3등 40명 \$20



보스톤 평화콘서트 유튜브에서 만나세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오은희 평통간사 = 민주평통 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회장 한선우)는 2021 보스톤평화콘서트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소개했다.

<그대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이 영상 평화콘서트는 평화기원문과 함께 2020년 대상을 받은 통일노래 개사대회 <보스톤서 달려갈거야>, 2021년 <하나되자 락앤롤> 곡과 함께 필하모니아 보스톤챔버의 한국가곡과 챔버뮤직이 수록되어 있다.

총책임자를 맡은 장수인 수석부회장은 “어려운 팬데믹중에서도 활발한 통일활동을 해온 19기 민주평통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 또한 어려웠던 팬데믹시절을 보내는 보스톤의 한인사회에 위로와 힘이 되는 음악선물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특히 이번 영상콘서트에는 보스톤거주 정민수씨의 아름다운 사계절 보스톤정경사진이 음악과 함께 삽입되어 있다. 함께 보스톤의 정경을 음미하시며 한마음으로 세계속의 한국,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해주시기 바란다. (아래 유튜브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Bostonnuac으로 검색.)

YouTube: bostonnuac
https://youtu.be/CIK_RbtOZhk

정관장

함께 이겨요!
 함께 지켜요!

지금은 모두가 힘내 우리를 지켜야 할 시간
보스톤 정관장이 함께 합니다!

면역기능 강화
예방적 관리를 위한 면역 기능 강화

피로 회복
정신적 육체적 안정성을 유지하여, 스트레스 내성을 높이고 건강 기능의 균형 유지

기초 체력 향상
지구력과 인내력을 조화시켜 기초 체력의 기준을 향상

신진대사 강화
자연스럽게 체온을 활성화하여 신체 기능과 체력 전환이 순조롭게 작동

혈류 개선 효과
건강한 생체 리듬을 활성화하면서 신체 각 부위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위한 혈류 개선

홍삼정 240g 1개 구매시 정관장 홍삼정 30g 증정

면역력으로 이겨냅니다!
정관장 추가 증정 및 할인 프로모션
행사기간: ~8월 16일까지

에브리타임 2개 구입시 10포 증정

신제품 홍삼리떼 15% 할인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화로 변경)

*전상품 1년 약정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방뉴스TV | MIBN |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뉴튼, 이제는 아시안 가정집만 노린 빈집털이

뉴튼 올해들어 빈집털이 빈번, 올해만도 41차례 발생
한인 가정들 별도의 잠금장치 및 경호 장치 설치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뉴튼에서는 지난 몇주간 수차례 빈집털이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주로 아시안 가정들만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이 밝혔다.



뉴튼에서 아시안 가정만을 노려 주택을 침입한 인물은 동일범인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 뉴튼 경찰

루탄 풀러 뉴튼 시장이 13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주말 낮시간대 아무도 없는 집에 침입하는 5건의 빈집털이 사건이 발생했다. 이 빈집털이의 공동점은 피해 가정이 모두 아시안들이었고 주말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를 노렸다는 것이다.

빈집털이 사건은 월넛 스트리트, 데담 스트리트, 헬렌 로드, 퀴노비컨 로드, 그리고 컨트리클럽 로드에서 발생했다. 범인은 모든 주택의 문이나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했으며 보석, 현금, 그리고 핸드백 등을 훔쳐 달아났다.

지난 6월 13일 이후 빈집털이 사건을 수사해 온 뉴튼 경찰은 아시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추정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데담 스트리트와 헬렌 로드 가정에서 확보한 범인 영상을 통해 동일범이었음을 확

인한 상태다. 경찰은 13일 이후 인근 이웃집들을 방문해 주민들과 사건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80명의 순찰조를 보강하는 한편 다른 범집행기관들과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 경찰은 5일 이상 집을 비우는 경우 경찰 웹사이트를 방문해 5일 이상 비우게 된다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뉴튼에서는 지난 3월과 4월에도 연쇄 빈집털이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범인 3명을 체포했었다. 풀러시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뉴튼의 빈집털이 사건만도 45건에 달한다.

빈집털이와 관련된 정보가 있는 한인들은 뉴튼 경찰 617-796-2104 또는 익명의 제보 전화인 617-796-2121로 제보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증가세 확인

▶▶3면에 이어서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더욱 대비를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자 및 비 접종자 모두에게서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델타변이에 백신이 얼마나 보호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텡스의대 학장인 헬렌 바우처 박사는 "우리는 모두가 백신을 맞아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을 때까지 우려해야 할 것 같다"며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 단 매사추세츠 뿐만 아니라 세계 모두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 고 밝혔다.

그럼에도 백신 접종이 상당히 진전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 것이라고 쿠리츠크스 박

사는 낙관했다. "이번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아닌 이상 백신을 접종한 경우 예방된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고 그는 밝혔다.

쿠리츠크스 박사는 실내에서 하는 쇼핑 정도는 큰 문제가 없으나 대형 실내 콘서트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머 박사도 백신 접종 후에는 다를 것이라고 동의했다. 그럼에도 해머 박사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실내 공공장소, 영화관, 레스토랑, 술집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다. 실내에서는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그는 식료품점에 쇼핑할 때도 자신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희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명문 보스턴라틴 등 입시제도 변경 만장일치 승인

학교 위원회 표결 앞두고, 교육감 수정안 거부 백인, 동양계 등 중심 입학에 남미, 흑인 반발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장명술 기자 = 14일 저녁 보스턴 공립학교위원회는 보스턴 라틴스쿨, 보스턴 라틴아카데미, 오브라이언트 스쿨 오브 매스앤사이언스 등 입학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명문 공립고의 입시제도 변경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지금까지 이들 학교는 학교 성적과 입학시험 2가지를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는 간단한 선발과정을 거쳤다. 일단 튜터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입학이 비교적 쉬웠기 때문에 백인들과 아시안 학생들의 주요 입학하는 학교가 됐다.

이에 대해 남미계와 흑인들은 다양성과 사회경제적 정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으나 학교측은 뜨거운 감자인 입학제도를 쉽게 건들지 못했다. 무엇을 해도 반발하는 측이 있으며 정계와 인맥이 있는 가정의 경우 바로 학교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보스턴 공립학교는 5개월 전 타스크포스를 편성해 입학시험제도 개선을 추진해왔고 이와 관련해 찬성 반대측이 나뉘어 청원서를 제출하고 소송까지 가는 등 계속 잡음을 일으켜 왔다.

따라서 보스턴코리아는 왜 이 학교들의 입학제도가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이번 신규입학제도는 과거의 단순한 제도와 달리 8개의 층으로 구분해 각 층에서 학교성과와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한다. 제도가 확정되

면 2023년-2024년 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입학자격은

보스턴시에 재학중인 6학년들부터 응시할 수 있다. 학교 성적이 70% 반영되며 시험성적이 30% 반영된다. 입시에 반영되는 학생들의 성적은 6학년 영어, 수학, 과학, 그리고 사회 그리고 5학년 영어와 수학 성적이다.

어떤 입학시험이 앞으로 사용되나 보스턴 학군은 입학시험은 MAP Growth 시험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입학제도에 따르면 교육감이 시험을 바꿀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시험은 1년에 봄과 가을 2차례에 걸쳐서 실시되고 이중 높은 점수를 입시에 사용할 수 있다. 보스턴공립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주중에 시험을 치를 수 있으나 다른 학교는 주말에 시험을 치러야 한다.

성적과 시험 외에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의 입학 가능성을 높이고자 정부보조를 받은 경제적으로 불우한 학생들이 최소 50% 이상인 경우 공립 또는 사립학교 학생들은 10점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케슬리우스 교육감은 40% 이상 학교를 빈곤 학교로 지정 가산점을 주자고 제안했다)

이 제도의 맹점은 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중위 소득 학생들은 혜택을 보게 되며 저소득층 비율이 적은 학교의 저소득층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새로운 입시제도에서는 이 같은 단

점을 보완키 위해 BHA 주택, 홈리스 또는 DCF 케어 학생의 경우 15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20% 시험 선발 입학은 무엇인가?

입시제도가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타스크 포스는 전 보스턴시 학교 시험 및 성적을 합한 상위 20%는 위의 3개 학교 중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입학신청자들은 사회경제적 생활 조건에 따라 유사한 가정환경을 가진 학생들 8개 층으로 분류된다. 7개 층은 센서스 자료를 통해 빈곤선 이하 소득, 비주택거주자, 싱글 부모 가정, 비영어사용가정, 교육 정도 등의 비율에 근거해 배정된다. 마지막 8단계에는 워터, 임시 주택, 포스터 케어 가정들이 포함된다.

타스크포스는 최초 모든 학생들이 이 8단계 층에 배정되어 선발되기를 원했으나 20%는 성적순으로 배정기로 함으로써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브랜다캐럴리어스 교육감은 투표 몇 시간 전에 20% 성적순 배정안을 거부하고 100%를 8개 층으로 분류해 선발할 것을 종용했다. 결국 학교위원회는 100% 단계별 배정 선발을 선택했다.

2022-23년 학년도와는 뭐가 다른가

대부분의 신규입시제도는 다음 입학 때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다. 다만,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의 부족을 감안해 입시 시험은 또다시 면제가 된다. 따라서 단 학교 성적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학교 성적이 평균 B 이상인 학생들은 입학 신청이 가능하다.

왜 논란이 심했나

입학시험제도는 20여년이 넘도록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부유한 가정의 경우 튜터와 입상 컨설턴트 등을 고용해 쉽게 입학하게 되므로 사회정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사실상 지금까지 보스턴라틴과 브라이언트 매스앤사이언스 학교 등은 대부분 백인 및 아시안 학생들이 합격되었다. 따라서 이들 학부모들은 현재의 제도의 유지를 원하고 남미 및 흑인 학부모들은 개혁을 원했다. 그럼에도 입학제도를 개혁시 인종별 대립이 격화될 것이 분명해 그동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번 개혁으로 결국 양측의 대립은 격화됐고 학교위원회 위원들의 설득을 로비가 치열해졌다. 계층별로 단계를 나눠 입학시키길 원하는 타스크 포스를 지지하는 청원과 기존의 시험 입시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청원이 동시에 제기됐다.

왜 갑자기 입학시험제도를 변경하게 됐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가져온 결과다. 팬데믹으로 시험 실시가 불가능해지자 학교측은 이를 기회로 삼아 우편번호를 중심으로 배정함으로써 다양성을 높이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 같은 시행으로 인해 백인 및 아시

안 집중현상이 일부 희석되며 다양성이 확보되면서 학교측은 제도변경에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반대하는 백인 및 아시안가정부도 연합은 우편번호를 인종의 대리로 삼아 흑인 남미계 학생 입학을 늘리고 아시안과 백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지난주 다시 소송문제가 제기된 것은 왜인가?

양측은 지난주 다시 법원에서 대결을 벌였다. 입학시험 옹호 아시안 백인 학부모 연합은 학교위원회 전 부위원장이 웨스트락스베리 백인가정을 비난하는 인종차별적 문자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문자는 지난해 10월 입시 입시제도를 승인하던 회의 동안에 보낸 문자였는데 이날 밤 다른 문자들은 법원에 모두 제출됐었다.

연방법원 윌리엄 영 판사는 자신이 현혹됐다며 자신의 의견을 철회했다. 그러나 다시 이 사건을 재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입시 입시제도의 합법성을 부여한 그의 판결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editor@bsotonkorea.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공인 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 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왜 아시안 역사는 MA학교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나?

▶▶1면에 이어서

, 적대적 외계인, 또는 종족주의적 인종차별 등으로 간주된다. 대나 팬 기자가 쓴 이 기사는 인터넷판 헤드라인으로 오래 유지됐지만 결국 인기기사 리스트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 기사마저도 관심을 끌지 못한 셈이다.

아시안은 미국 역사에서 영웅이나 체계적 불공정과 싸우거나 인권운동 대의명분을 증진시키는 혁명가로 그려지지 않는다. 아시안 학생들은 자신들이 지워진 채 유럽중심의 세계사를 반복해서 교육받게 되고 심리적 영향은 심화된다.

조지아주의 케니소주립대 사회학교육과 안소현 교수는 “(아시안 역사가 빠진 교육이 주는) 메시지는 아시안은 외국인이거나, 위협한 위협이거나 아니면 수동적인 희생자” 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아시안아메리칸역사가 미국내 학교에서 교육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

학교에서 아시안 역사교육의 부재는 팬데믹 이후 왜 아시안 혐오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학자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새로운 아시안 혐오중단 운동은 학생들에게 아시안으로서의 경험을 좀더 철저히 이야기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균등한아시안역사교육법 (Teaching Equi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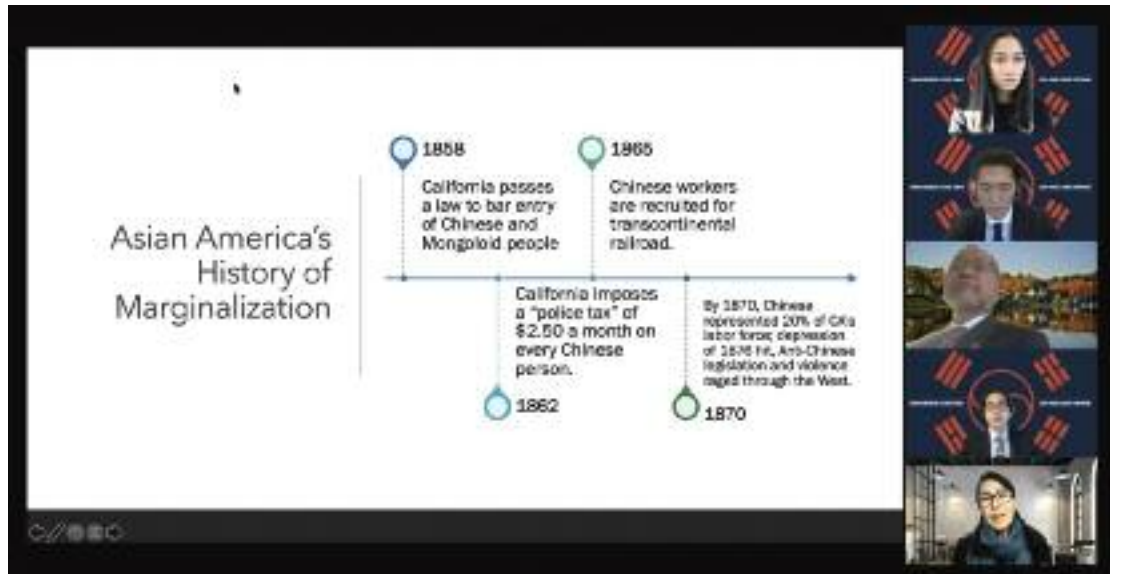
Asian American Community History Act)을 최근 통과시켜 공립학교에서 최초로 아시안어메리칸 역사를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첫 번째 주가 됐다. 이와 더불어 뉴욕, 커네티컷 그리고 위스콘신 주도와 유사한 법안을 심의 중이다.

매사추세츠에서는 니덤에서 학부모그룹이 매사추세츠 초중등교육부에 청원을 넣어 학교 커리큘럼에 아시안 역사를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의회도 교육부에게 소수민족학, 인종 정의, 균등한 역사, 레이시즘 청산 등을 가르치도록 협력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한 법안을 고려 중이다.

안 교수는 “우리는 커리큘럼을 바꿔 백인들만이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격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내 교육에서 아시안어메리칸 역사 교육은 일본인 감금과 중국인배척법이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주제다. 일본인 감금은 25개 주에서 가르치며, 중국인배척법은 14개주에서 가르친다. 다른 아시안 인물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거나 간헐적이며 인권운동 등에서는 언급이 전혀 없다.

뉴욕은 가장 활발하게 아시안 역사를 가르친다. 역사인물들 중 아시안에 대한 언급이 14번으로 가장 많다. 미네소타, 하와이, 오레곤



등은 8번으로 그 뒤를 이었다.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테네시 등은 7번 언급했다. 로드아일랜드 그리고 메인을 비롯한 18개 주는 아시안역사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다.

매사추세츠의 사회과학커리큘럼은 아시안 역사를 산발적으로 다룬다. 아시안들의 서부와 동북부의 이동, 일본인 감금, 미 산업화에서 아시안들의 역할 등을 다룬다. 주 교육부는 보스톤글로브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당장 매사추세츠 교육 커리큘럼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 고 말하고 교실에서 사용되는 교육자료는 각 지역학교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케이티 유섬리 보스톤공립학교 소수민족교육코디네이터는 각 교사에게 아시안역사교육을 하도록

책임을 지우지만 교사들은 시험점수에 더 많은 중점을 두며 주 평가 시험 MCAS에 등장하지 않는 주제에 시간을 보낼 여유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리 씨는 “학교 교실에서 자신(아시안)을 볼 수 없고, 커리큘럼에서 자신을 볼 수 없으며, 사회에서 볼 수도 없다……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듣게 되고 거기에 대해 따지면 닥치고 너일이나 하라고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쳐 거의 자신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워버리게 된다” 고 밝혔다.

미질병통제센터가 보스톤 중학생을 상대로 한 정신건강 설문에 따르면 아시안 학생의 14%가 자살 충동을 느꼈다. 백인학생은 4%, 흑인학생은 10%, 히스패닉 학생은

12%였다. 중학생의 82%는 정신건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안뿐만 아니라 미국사회 전반에서 아시안 역사 교육의 부재가 미치는 영향은 크다. 미국인들 중 42%는 유명한 아시안을 모르겠다고 답했을 정도다.

차이나타운에서 자란 루오는 퀸지 초등학교에 다녔다. 대부분은 아시안이었다고 선생님도 모두 아시안 문화를 따랐다. 그러나 보스톤 라틴스쿨에 다니면서 적응이 쉽지 않았다. 점심 음식을 갖고 놀리는가 하면 남학생들은 순종적인 아시안을 좋아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학교 과정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고 루오는 밝혔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 도시에서 민연진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경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보스톤, 14 주택중 한곳이 1백만불 이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인근에서 매대된 집 중 1백만불을 호가하는 집은 14채 중 한 채 꼴이며 약 7%를 차지해 미국내 매트로 지역에서 7번째로 비싼 지역으로 선정됐다. 재정 웹사이트 렌딩트리(LendingTree)의 조사에 따르면 보스톤보다 비싸게 팔리는 매트로 지역은 산호세, 샌프란시스코로 3분의 1 이상의 주택이 1백만불을 호가한다. 그 뒤로는 LA, 샌디에이고, 뉴욕, 그리고

시애틀 등이 위치했다. 그러나 보스톤 인근의 타운 중 상당수는 평균 가격이 1백만불을 넘고 있다. 워렌그룹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5개월동안 매사추세츠 동부 16개 타운의 평균가격이 1백만불을 넘었다. 가장 비싼 곳은 보스톤이며 브루클라인과 웨스턴이 평균 1백80만 달러로 선두권을 형성했다.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원에 따르면 그레이터 보스톤 지역의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5월 기록적으로 높은

76만 달러였다. 랜딩트리에 따르면 보스톤 지역은 점차 렌트에 비해 주택 소유가 비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보스톤지역(매사추세츠)의 평균 월 렌트비용은 \$1475로 미국 내에서 7번째로 높았다. 반면 평균 모기지 금액은 \$2427로 미국내에서 5번째로 높았다. 가장 모기지 금액이 높은 곳은 뉴욕이었고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LA 순이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지난 주말 10건의 총격사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년 여름에 빈번히 발생하는 총격사건이 올해도 도체스터(Dorchester) 인근에서 발생했다. 지난 주 일요일인 11일 밤 미션힐 인근에서 한 사람이 총격을 당한 것을 포함 주말 3일 동안 무려 10차례의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일요일 사건을 제외하면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동안 무

려 9건의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10건 총격 사건 모두 목숨을 해치지 않았다. 10일 토요일 4명의 남성이 도체스터 카메론 스트리트 34번지에서 총상을 입었다. 앞선 10일 오전 락스베리에서는 한 남성이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피해자는 보마 호웰(42)씨로 밝혀졌다. 호웰은 위험 무기 소지 및 폭행죄로 법원에 출두가 예

정되어 있었다. 토요일 이른 아침 4시 30분께 자메이카플레인에서 한 남성이 총상을 입었다. 금요일 밤 9시 30분 도체스터의 571 더들리 스트리트에서 한 여성이 총격을 받고 부상을 당했다. 이 총격 사건 바로 직후 2명의 남성이 총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들은 어디서 부상을 당했는지에 대해 경찰에 밝히지 않았다.



케임브리지 스몰비즈니스 그랜트 신청받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케임브리지시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도울 수 있는 프로젝트에 최대 7천불까지 지원하는 그랜트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스몰비즈니스챌린지(Small Business Challenge)라 부르는 이 그랜트 프로그램은 마케팅, 장식, 기술업그레이드 및 트레이닝 등의 프로젝트에 대해 100% 자금을 제공한다. 과거 그랜트를 받은 업체들은 건물을 더 매력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배너, 미술품 등 장식 설치, 쇼핑 이벤트, 테마 투어, 로고 및 브랜드 업데이트,

사진 전문가 고용, 웹사이트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그랜트를 받았다. 그랜트는 프로젝트당 \$3,000-7,000으로 한 업체에 최대 7천불까지 지원한다. 2021년 가을 그랜트의 경우 9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2022년 봄에는 2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https://www.cambridgema.gov/CDD/econdev/smallbusinessassistance/smallbusiness-challenge>에서 알아볼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재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래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GRAND RE-OPEN
축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요가송의 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초보자도 가능한, 차분한 아침을 위한 모닝요가

요가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처음 유튜브로 요가를 배우려고 영상을 틀면, 초보자를 위한 요가라 해도 좀처럼 따라하기 힘들뿐 아니라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영상을 보면서 따라한다고 해도 과연 내가 맞게 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동작을 줄이고 대신 속도를 더 천천히 해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했어요. 검색창에서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을 검색하셔서 최근 오픈한 한국어 요가채널 꼭 구독해주시고, 최근 영상에서 '차분한 아침을 여는 데일리요가' 를 찾아 따라해보세요. 궁금한 점이나 제 채널에 바라는 점 등은 영상하단에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시구요.



두번째 자세는 코브라 자세(가슴, 어깨, 복부 스트레칭)입니다.

STEP 1. 배를 바닥에 댄 상태에서 두 손을 가슴 바깥 옆에 가져가 바닥을 짚습니다.



첫번째로 배를 자세는 사이드 밴드(옆구리, 어깨)입니다.

STEP 1. 앉은 자세에서 두 손을 깍지껴 천정쪽으로 보냅니다. 사진처럼 한다리를 펴 주셔도 좋습니다.

STEP 2. 들이쉬는 숨에 척추를 곧게 폄다가 내쉬는 숨에 두 손을 한쪽으로 보내면 보낸쪽 반대 방향 옆구리가 길어질거예요

POINT! 어깨에 긴장감없이 진행해주시구요, 가슴이 바닥이 아닌 정면 혹은 천정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STEP 3. 3-5회 반복후,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STEP 2. 복부를 등쪽으로 수축한 상태에서 들이쉬며 팔꿈치를 갈비뼈쪽으로 모으며 상체를 바닥에서 떼어줍니다.

POINT! 견갑골을 등쪽으로 내리고 어깨를 바닥쪽으로 내려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STEP 3. 숨 내쉬면서 가슴을 바닥에 대고 잠시 휴식했다 원하는 만큼 더 반복해줍니다.

라이브 ZOOM 무료 체험 온라인 클래스
현재 매주 3회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 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아름다움과 긍정의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이니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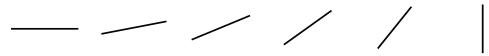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COMPASS



Our mission is to help everyone
find their place in the world.



Why Compass 왜 컴파스인가?

- 부동산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프롭테크(PropTech) 기업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nology) = 컴파스 (Compass)
- 부동산 구매자와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매물 검색과 개인화된 매물추천,
부동산 거래 관련 상호 커뮤니케이션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통합 부동산 플랫폼 제공
-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5000억원 투자한 회사
- 저스틴 월슨 비전펀드 선임 투자전문가 “컴파스는 주택 구매자와 중개업자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기술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이 분야에서 입지가 탄탄한 기업”
- 2019년 판매량 기준 보스턴 및 케임브리지 1위 (Source: MLS)
- 750+ Agents in Greater Boston
- Operates in 20 U.S. markets including New York, Philadelphia, Boston,
LA, Chicago, Washington D.C., Dallas, etc.

Agent Introduction 에이전트 소개

안녕하세요, 제이슨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미국 최고의 부동산 회사인 컴파스와
함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부동산 토탈 서비스를 가지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 (dedication), 믿음 (Trust), 결단력 (Determination) 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mpass 와 함께 차원이 다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Realtor®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Compass Services

Compass Concierge 컴파스 컨시어지

컴파스 컨시어지는 셀러에게 무이자로 주택 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페인트, 바닥, 스테이징 등
집 리모델링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최대한 올려 더 빠르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Compass Coming Soon 컴파스커밍순

compass.com 에 부동산을 시장에 출시 될 예정임을
사전에 광고하여, 사이트를 검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ompass Bridge Loan Services 컴파스 브릿지론

컴파스 브릿지론은 최대 6개월의 브릿지대출의 대출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브릿지 대출 기관인 Freedom Mortgage, Better.com 의
경쟁력있는 이자율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제 50대 회장단 출범

12월 캘리포니아주LA 에서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 UKC 2021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7월 1일 제 50대 신입회장단을 출범하면서 "박병규 호"의 출항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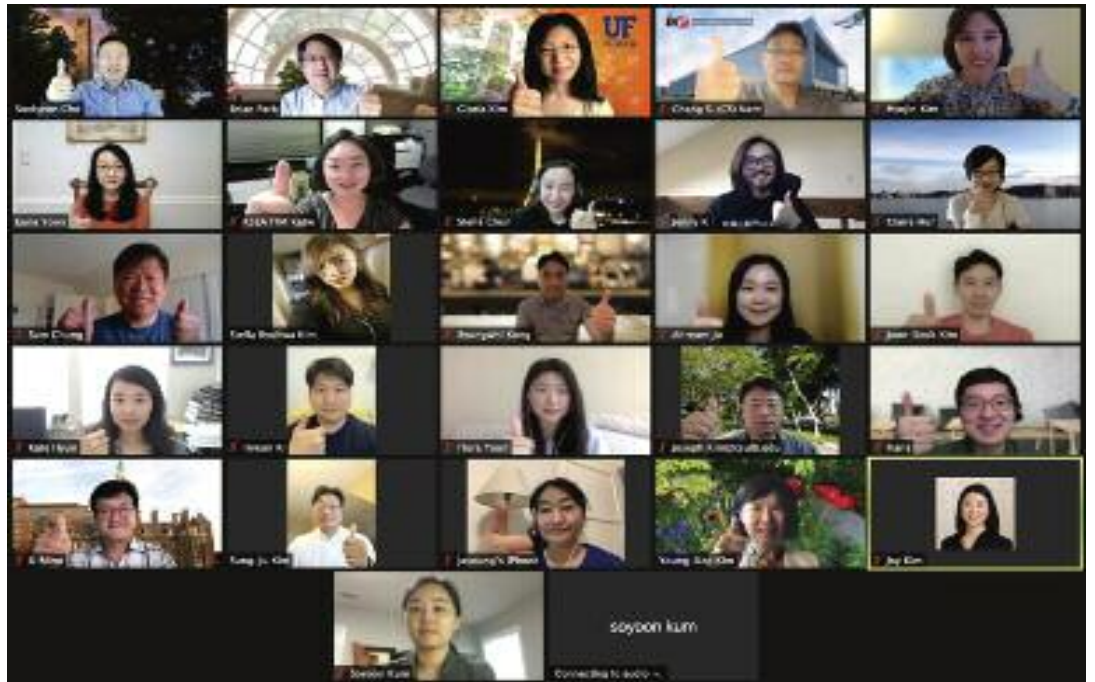
박병규 KSEA 신입회장은 버니 지아주립대(UVA) 공학시스템과 환경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KSEA 부회장과 감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박병규 회장은 한양대에서 도시공학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Texas A&M 대학에서 토목공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미국 토목학회(ASCE)의 Journal of Transportation Engineering 등 다수 저널의 부편집장 및 편집위원을 맡고 있으며 미국 전자통신학회(IEEE)의 최우수 연구 논문상 등 여러 상을 수상했다.

박회장의 임기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며, 차기 회장으로는 페르미 국립 가속기 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한 시카고 대학 물리학과의 김영기 교수가 선출되어 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 임기를 맡게 된다.

박병규 신입회장과 김정아 제1부 회장(플로리다 주립대), 남창수 제2부회장(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을 포함한 26명의 임원들은 이취임식 후 출정식을 갖고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2021)를 포함한 향후 1년 간의 사업 계획을 세우고 글로벌 과학기술협력과 차세대 과학기술자 양성 방안 등을 모색했다.

KSEA는 매년 전국수학과학경시대회(NMSC)를 통해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수학과 과학 탐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학부생/대학원생 장학금 수여와 유망과학기술자 그랜트, 경력개발 워크샵(SEED), 과학기술창업벤처 프로그램(STEP-UP) 등을 개최하여 차세대 과학기술리더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R&D협력사업 통해 한미간 과학기술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KSEA는 지부단위로 연중 150개 이상의 학술 행사와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2월 15일-18일에는 한,미 간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학술대회인 UKC 2021를 LA 인근 Hyatt Re-



온라인 미팅으로 진행된 KSEA 회장단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한 임원진들

gency Orange County에서 개최한다.

KSEA와 한국과총(KOFST, 회장 이우일)이 공동 주관하는 UKC 2021은 올해로 34회를 맞이한다. UKC 2021에는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1,000명 이상의 과학기술자, 기업가, 정책결정자, 과학기술전공 학생들이 모여 첨단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학술토론과 정보교환을 통해

과학기술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인적 네트워크에 향상을 도모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보건자문인 에릭 구스비 교수(UC-San Francisco)을 비롯한 미 행정부 멤버들이 참여하는 과학과 정책 포럼 뿐만 아니라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후변화와 보건 분야의 포럼 개최를 준비하여 한,미 간 정책 실무자들 간 논의

의 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개최식 기조연설자로 2020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Andrea M. Ghez 교수(ULCA)가 강연하며 13개 테크니컬 분야별 심포지엄과 기업가 심포지엄, 창업 대회, 대학 지도자 포럼, 여성과학기술자포럼, 차세대 전문인 포럼, 기술전략 포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별 포럼들이 개최된다.



마음대로 골라본다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볼로 변경)

<p>Plus 상품</p> <p>KBS, MBC, SBS, EBS, YOUTUBE</p> <div style="background-color: #E67E22;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24⁹⁹ </div>	<p>Premium 상품</p> <p>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p> <div style="background-color: #3498DB;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34⁹⁹ </div>	<p>VIP 상품</p> <p>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p> <div style="background-color: #E67E22;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39⁹⁹ </div>
---	--	---



*전상품 1년 약정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윈도 OS가 설치된 PC · 노트북은 물론, 애플의 OS가 깔린 맥 · 아이폰 · 아이패드, 구글의 안드로이드 OS가 깔린 기기 · 크롬북을 쓰는 사람도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윈도 365 OS를 이용할 수 있다.

MS, 애플 PC 이용자도 쓸 수 있는 클라우드 OS 공개

'윈도 365'...애플 · 구글의 PC · 노트북 · 태블릿 이용자도 이용 가능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가 14일(현지 시간) 애플이나 구글의 PC · 노트북을 쓰는 이용자를 겨냥한 PC 운영체제(OS)를 내놨다.

MS는 이날 클라우드 환경에서 돌리는 PCOS '윈도 365'를 공개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윈도 OS는 그동안 모두 PC에 직접 설치해 컴퓨터를 구동하는 방식이었는데, 윈도 365는 100% 클라우드에서 작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윈도 OS가 설치된 PC · 노트북은 물론, 애플의 OS가 깔린 맥 · 아이폰 · 아이패드, 구글의 안드로이드 OS가 깔린 기기 · 크

롬북을 쓰는 사람도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 윈도 365 OS를 이용할 수 있다.

MS의 기업고객 담당 부사장 재러드 스페테로는 신규 서비스가 기업체, 그리고 사무실과 집을 오가며 일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에 대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들이 PC나 노트북을 들고 출퇴근하는 대신 사무실에서든, 집에서든 개개인에게 맞춤형 클라우드 기반의 윈도 데스크톱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MS는 또 이 서비스가 인턴이나 계약직 직원, 소프트웨어 개발자 · 디자이너처럼 회사 기기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나 애플 등 경쟁사제

품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유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윈도 365는 MS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와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MS에 새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스페테로 부사장은 밝혔다.

최근 기업을 상대로 한 랜섬웨어 공격 등 해킹이 빈번한 가운데 윈도 365는 보안상 장점도 제공한다고 스페테로 부사장은 덧붙였다. 데이터를 모두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데이터를 가져갈 위험성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기업 고객들은 월간 구독료를 내고 이 서비스를 구독할 수 있으며 요금은 사용자 수와 클라우드 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MS는 다만 구체적

인 요금제는 밝히지 않았다. WSJ은 이번 신제품 출시를 두고 MS가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이 윈도 OS를 더 폭넓게 보급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내기를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윈도 365는 또 MS의 간판 상품인 PC용 OS의 새 버전인 '윈도 11'이 지난달 공개된 뒤 한 달 만에 발표했다. 윈도 11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에도 문호를 여는 등 경쟁 플랫폼과의 통합에 방점을 찍으면서 컴퓨터 세계의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약 10년 전만 해도 MS는 PC와 스마트폰을 아우르는 전 세계 OS 시장의 85%를 장악했지만, 지금은 30%까지 점유율이 떨어졌다. 소비자들

이 PC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처럼 애플 · 구글의 OS를 탑재한 기기로 많이 옮겨갔기 때문이다.

WSJ은 또 애플의 맥 PC · 노트북 이용자를 끌어들이려는 이번 신제품이 PC 초창기 시절 MS와 애플 간에 벌어졌던 치열한 경쟁이 최근 다시 재점화한 가운데 발표됐다고 짚었다.

MS는 인기 1인칭 슈터(FPS)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스가 애플을 상대로 벌이는 앱 수수료 관련 소송에 지원군으로 동참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가 "세상은 더 개방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애플의 배타적 생태계를 저격하기도 했다.

sisyphe@yna.co.kr

미 신규 실업수당 36만건... 코로나 사태 후 최저치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7월 4~10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6만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예상을 깨고 깜짝 증가세를 보였던 전주보다 2만6천건 감소한 결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이번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5만건보다는 다소 많았으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와는 일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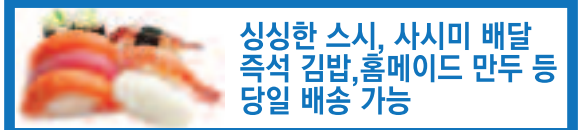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2만6천건 감소한 32만4천건으로 집계

됐다. 정부의 각종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모든 미국인 수는 지난달 19일 현재 1천420만명으로 전주보다 45만명 감소했다.

미 경제 상황 개선과 기업들의 채용 확대 덕분에 실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백신 접종과 경제활동 재개에 힘입어 여행, 레저 수요까지 살아나면서 고용 시장에 훈풍을 몰고왔다.

미 26개주가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 급여를 조기에 지급 중단한 것도 고용실적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추가 급여 덕분에 일하지 않아도 먹고사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실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일 자리를 찾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신신마트 당일배송



싱싱한 스시, 사시미 배달
즉석 김밥, 홈메이드 만두 등
당일 배송 가능

배달 서비스

EXPRESS DELIVERY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 순두부 (\$7.99)
- 육개장 (\$9.99)
-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 메주콩, 검정콩 \$29.99/5LB
-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 마른대추 \$29.99/1bag
- 고춧가루 \$69.99/3.8LB

신신마트) 978.686.0813 (매장)
781.308.2073 (줄리 안), 781.308.2072 (다니엘 안)

케이터링 문의
한식, 일식, 중식 케이터링 (보스톤 4성급 호텔에 납품하는 허가된 등록업체입니다)
문의 781.308.2073 (줄리 안)



9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이동 클리닉에서 의료 요원이 코로나19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미 코로나바이러스 다시 증가세 3주동안 확진자 두배로

45개 주서 신규 확진자 10% 이상 늘고, 34곳선 50% 이상 증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독립기념일 모임, 휴가 확산 그리고 전염성 강한 인도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감소해가던 미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CNN 방송은 미 존스홉킨스대학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3천346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보도했다.

이는 1주일 전보다 97% 증가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초부터 하루 신규 감염자가 대체로 1만명 선을 유지했는데 지난 9일에는 4만8천200여명으로 치솟았고, 12일에도 3만2천700여명으로 집계됐다.

CNN은 "보건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백신 미 접종자와 더 전염성 높은 코로나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결

합하면서 새로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조지워싱턴대학의 조나단 라이너 의학 교수는 이들 신규 확진자의 약 3분의 1이 플로리다·루이지애나·아칸소·미주리·네바다주 등 5개 주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5개 주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5곳에서 감염자의 3분의 1이 나온 셈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이 5개 주는 모두 백신 접종률이 48% 미만인 곳이다.

주(州)별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다. 45개 주에서 최근 1주일간의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10% 이상 늘었다. 이 중 34개 주에서는 확진자 증가율이 50%를 넘겼다.

확진자가 10% 이상 감소한 곳은 메인·사우스다코타·아이오와주 등 3곳에 그쳤다. 델라웨어·아칸소

주 등 남은 2곳은 큰 변동이 없었다.

의사들은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의 절대다수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 CNN은 전했다. 바로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미주리주는 미국에서 델타 변이의 대규모 발병이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 연방정부는 최근 이곳에 CDC 및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의 요원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확산 대응팀을 파견했다.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의 응급외과 의사인 하워드 자비스 박사는 "환자가 입원해야 할 만큼 아프면 그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이는 그런 환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절대적인 공통분모"라고 말했다.

자비스 박사는 또 어느 때보다 젊

은 코로나19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다며 "30대, 40대, 50대 초반인 환자를 많이 보고 있다. 심지어 일부 10대나 소아과 환자도 본다"고 덧붙였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카운티의 경우 최근 2주새 신규 확진자가 63% 증가했다. 이 카운티의 행정책임자

샘 페이지는 "백신을 맞지 않은 주민들을 향해 해일이 몰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변이(델타)는 빠르게 확산하는 중이고,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황폐화할 능력을 지녔다"며 "그게 지금 백신을 맞는 게 시급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시아계 역사 교육의무화법 안' 일리노이서 미 최초 승인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미국 시카고를 포함하는 일리노이주가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역사를 공립학교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56·민주)는 9일(현지시간) 한인 다수 거주 지역인 시카고 북서 교외 도시 나일스의 나일스웨스트 고등학교에서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제도민들의 역사 주정부 관할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한 '공정한 아시아계 미국인 역사 교육'(Teaching Equitable Asian American Community History) 법안에 서명했다.

일간 시카고 트리뷴은 "코로나19 사태 기간 아시아계 대상 폭력 범죄가 증가한 것이 계기가 됐다"며 "일리노이는 아시아계 미국인 역사를 공교육 과정에도 입한 미국의 첫 번째 주가 됐다"고 전했다.

이 법안에 따라 일리노이주 공립학교는 내년 가을부터 아시아계 미국인·태평양 제도민들의

미국 이민사와 일리노이 포함 미 중서부 지역 정착 과정, 미국 사회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내용 등을 정규 교과 과정에 편성해야 한다. 기본 지침은 일리노이 주 교육위원회가 내리되 수업내용, 할당 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교육청이 결정할 수 있다.

일리노이 주의회의 아시아계 의원 5명 가운데 1명인 중국계 제니퍼 공-거쇼비츠 주하원의원(민주)은 법안 서명식에서 "로스쿨 진학 전까지 미국의 '중국인 배척법'(1882년 발효·1943년 폐지)에 대해 배우지 못했고, 조부모님이 차별 및 추방에 대한 두려움에 떨며 살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리노이 공립학교에서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억류,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미국 역사와 문화에 기여한 공로 등에 대해서도 가르치게 된다"며 "10만 명에 달하는 일리노이주 아시아계 초·중·고교생들이 자신의 뿌리와 배경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스톤코리아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시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당정 또 충돌... 洪 "80%지급" 교수 vs 민주 "해임건의" 발끈

송영길 "차별없는 지급이 당론" 김부겸 "손해 없는 층에 주는 게 옳은가"

(서울=연합뉴스) 이윤미 고등육
규빈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예결위 심
사 첫날인 14일 재난지원금 지급 범
위를 놓고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 당론에 반
기를 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
부장관에 대해 '해임' 가능성까지 입
에 올리며 압박했지만, 정부는 기존
추경안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소득 하위 80%' 원안을 고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고, 동시
에 국민 재난지원금이 차별 없이 돼
서 상호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당
국과 야당과 협의해 공감대를 만들
겠다"며 선별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보편 지급' 당론을 재천명했다.

민주당은 특히 전국민 지급 방침
에 대해 반발하는 홍 부총리와 재정
당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을 관
건으로 보고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
에서 "당은 데이터 등을 갖고 설득
작업을 할 것"이라며 "당내서는 해
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
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경고
했다.

예결위원장인 박홍근 의원도 이
날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
신해 예산 규모와 우선순위를 조정
해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통한 추경
안 수정·보안에 무게를 뒀다.

당 을지로위 소속 이동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날 홍 부총리가 전
국민 지급 방향에 대한 여야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재정운용은 기재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신념을 관
철하고 싶으면 행정이 아니라 정치
를 하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정부는 고소득자를 재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 지
급안의 취지를 거듭 역설하며 물러
서지 않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예결위에 출
석, 80% 지급안에 대해 "재난 지원인
데, 재난 기간에도 전혀 소득이 줄지
않았던 고소득자들에게는 일종의
사회적 양해가 될 것"이라며 "그만
큼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들려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래서 80%까지 지원
금을 드리는 경로 (추가경정예산안
을)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이
라며 "손해나 소득 감소가 없는 층까
지 다 주는 게 옳은가라는 회의가 있
는 분이 많다.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국회 일각'에서
100% 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80%를
걸러내는 것이 복잡하고, 기준이 모
호하지 않느냐고 지적한다"며 "(소
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
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
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
하느라고 80%로 제출했다"며 "추경
안 제출 후 4차 유행이 오는 상황이
있었지만, 수정안을 낼 정도는 아니
라고 생각한다"고 언급, 추경 규모
확대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피
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손
실보상을 비롯한 피해지원 예산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러나 정부가 강경하게 반발함에 따
라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책은 시급
히 시행하되, 전국민 지원금은 코로
나 확산세를 지켜보고 지급 시기를

다소 늦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복안이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에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 원래
추경안에서 증액이 2조~4조원 정도
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

다. 백 최고위원은 "4차 유행이 어느
정도 마감되고, 방역도 되어야 한다"며
"(지급 시기는) 빨라야 9월, 9~10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
다. dk@yna.co.kr

대체공휴 확대, '쉬는 국경일'에만 적용... 성탄절·석탄일 제외

정부는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
의 '쉬는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개천절(10
월 3일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 직후의 월요일
이 추가로 '빨간 날'이 된다.

당초 대체공휴일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성탄절은 제
외됐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
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
을 오는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에 3·1절
,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됐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총 11일로 늘어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
할 수 있도록 지정 절차도 명확히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
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
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대체
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
령에 위임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EAT THE HEAT KOREAN STYLE



BURLINGTON WEEKLY SALE JULY 16th - JULY 22nd, 2021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중복 폭폭지는 삼복더위!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가는 여러분을 재충전 시켜줄 보양식 재료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H 마트와 함께 이겨내세요.

On hot days, we love to re-energize with savory chicken stew. Energize your body with the best quality and taste at H Mart.

H 마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 H 마트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6피트 안전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7.99 EA	Idaho Potato 아이다호 감자 \$0.79 LB	White Cabbage 화이트 양배추 LB \$0.79	Stem Tomato 스텝 토마토 \$0.99 LB	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SILKEN/SOFT/FIRM 14-16 OZ/PKG \$1.29
Korean Melon 황금싸라기 참외 \$1.99 LB	Kabocha 단호박 \$0.99 LB	Washington Fuji Apple 워싱턴 후지사과 PREMIUM QUALITY \$1.49 LB	Packed Garlic 마늘 2\$3 5 CNT FOR /PKG	ROSHNI Peanut 로시니 땅콩 56 OZ PKG \$4.9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Eye Roll Steak Chuck 생 목등심 스테이크 LB \$9.99	Fresh Ox Tail 생 소꼬리 LB \$11.99
Fresh Chicken Drumstick 생 닭북채 (닭다리) LB \$1.49	Frozen Cornish Hen 냉동 영계 LB \$2.49
Frozen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크용 냉동 삼겹살 LB \$6.99	Marinated Pork Bulgogi 양념 돼지고기 LB \$5.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ozen Squid 냉동 오징어 LB \$3.99	Frozen Norwegian Mackerel 냉동 노르웨이 고등어 LB \$1.99
Frozen Abalone 냉동 전복 LB \$19.99	Frozen White Shrimp 냉동 흰새우 26-30'S LB \$6.99
Frozen Baby Octopus 냉동 쭈꾸미 16-25'S LB \$5.99	Fresh Wild Sockeye Salmon 자연산 사카미 연어 LB \$9.99

SMART CARD MEMBER ONLY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쌀 15 LB \$12.99	KWANCHUN Green Tea Seaweed 광천 녹차/정파래 녹차김 선물세트 \$9.99 ORI./GREEN LAVER 0.71 OZ X 10 EA/BOX
PALDO Bibim Men ORIENTAL STYLE NOODLE 팔도 비빔면 4.58 OZ X 5 EA /PKG \$3.99	CHUNGJUNGONE Sunchang Doenjang (Soy Bean Paste) 청정원 순창 재래식 생된장 \$6.99

KYONG GI No.1 Super Quality Medium Grain Rice 경기미 40 LB \$29.99	HAIO Ume Plum Syrup 해오름 매실청 24.35 FL OZ \$6.99	MIZKAN Oigatsuo: Tsuyu Soup Base 미쯔칸 쓰유 소스 32 FL OZ \$8.99	THREE CRAB BRAND Fish Sauce 삼계 순멸치 액젓 24 FL OZ \$4.99	GOMPYO Wheat Flour 곰표 중력다목적용 밀가루 5.5 LB \$3.99
S&B Golden Curry S&B 골든카레 MILD/MED. HOT/HOT/EXTRA HOT/7.8 OZ \$2.99	YOODONG Canned Bai-top Shell (Whelk) 유동 골뱅이 통조림 14.1 OZ \$6.99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BOX \$9.99	HAIOREUM Imitation Crab Meat Sticks 해오름 게맛살 2.2 LB \$4.99	JONGGA Authentic Korean Cold Noodles 종가집 함흥식 비빔/평안도식 물냉면 CHILLY BIBIM/BEEF BASED BROTH 13.4-27.5 OZ \$3.99
HAITAI Baked Potato Snack 해태 구운 감자 3.8 OZ 2\$5 FOR	KWANDONG Vita 500 Vitamin Drink 광동 비타500 100 mL X 10BTLs /BOX \$4.99	Square Shaped Glass Bottle 사각 큐빅 오일병 250 mL 2 PCS/SET \$6.99 \$10.49	KOTO Bone China Mug Cup 코토 본차이나 머그컵(백자) EA \$2.99 \$4.49	HELLO! Vacuum Cup w. Transparent Lid 헬로 투링 투명 보온보냉 컵 MUG-400mL(WHITE/ORANGE/BLUE MIX)/TUMBLER-600 mL (MINT/BLACK/PINK/WHITE MIX) \$8.99 \$11.99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 1000 YEAR KIMCHI TASTE THE BOLD TRADITION

유산균 김치 / 100% 천연재료 사용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사장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부사장 애나 정
617.780.1675
Boston Branch Manager
anna@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제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OUR AGENTS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Rick Shin
781.530.0034
ricks@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김원태
617.620.8242
otk212@gmail.com



재키형
617.795.6171
jacki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Eunsuk Song
413.313.4165
kathysong2019@gmail.com



주희정
617.831.6999
jessie@bostonpremierrealty.com



주승원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최승진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레이크 김
781.956.0409
drjakem@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nhwang1@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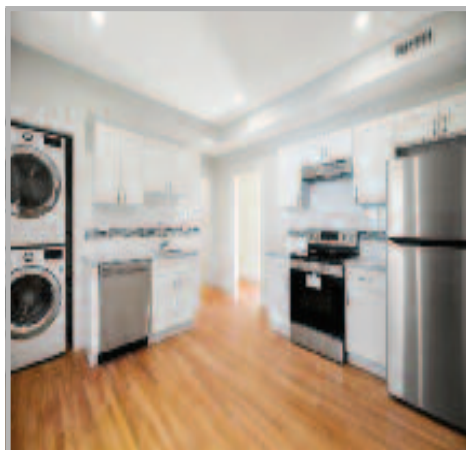
다이애나 김
617.271.203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FEATURED LISTINGS



● 2 베드 아파트 렌트

자마이카 플렌
롱우드 1.3 마일
그린라인, 오렌지 라인
홀 푸드 0.2 마일
파킹 1

Asking 월 \$2,900(렌트)



● 싱글 패밀리 하우스 매매

North Andover

Asking \$95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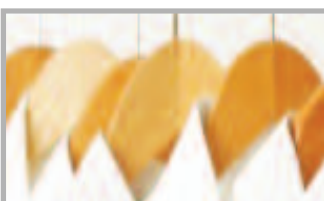
LISTINGS



● 세탁소 건물 + 비지니스

현재 성업중인 Full Plant 세탁소 건물, Watertown 재개발 상권(호텔, 콘도, 쇼핑몰, 콘도, 연구실...)과 레지덴셜이 맞물린 위치, 파킹 5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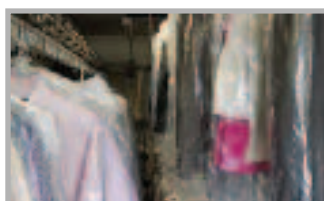
Asking \$999,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에 위치(Norwell) 성업중인 Drycleaner 드롭 오프 & 얼트레이션 오랜기간 운영으로 꾸준한 단골이 많음

Asking \$53,000



● 세탁소 매매

안정적인 매상, 두터운 고객층,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Full Plant 년매상 \$250,000

Asking \$189,000



● 식당매매

높은 매상으로 수익보장, 팀워크는 직원들로 구성 식당 무경험자도 쉽게 운영가능 K-food 인기로 향후 매출증가 기대

Asking \$280,000



● 네일샵 매매

T 스테이션에 가까운 위치, 연매상 80만불이상 철저한 고객관리로 안정된 인력, 전용주차장

Asking \$380,000



● 세탁소 매매

Full Plant, 보스톤 북동쪽 타운 확보된 단골고객들 리뷰&매상 좋은 세탁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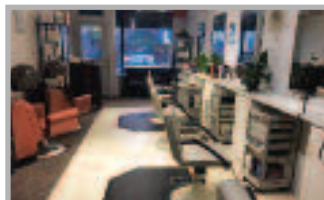
Asking \$200,000



● 세탁소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Full Plant 확보된 안정된 고객층

Asking \$120,000



● Lexington Hair Salon

Lexington 사업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헤어사롱, 26년 주인이 직접 운영해서 단골 손님이 많음.

Price Reduced
급매 Asking \$40,000



● Westford Nail salon

단골 손님이 많고 매상이 계속오르는 네일사롱 Manicure 6, Pedicure 6

Asking \$170,000



● 세탁소 매매

교통 좋은 위치, 보스톤 북쪽 30분 거리 Full Plant + 새 프레스 기계

급매 원함 Asking 문의 바람



● 네일샵 매매

높은 매상과 안정된 고객층 고급스런 인테리어 최상의 비즈니스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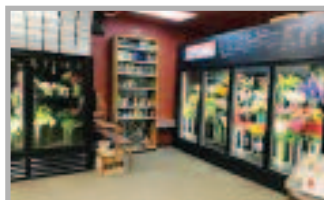
Asking \$320,000



● 드라이클리닝 세탁소 드랍스토어

보스톤에서 30분거리 Haverhill 손쉬운 운영, 저렴한 렌트비 문의바람 978-494-2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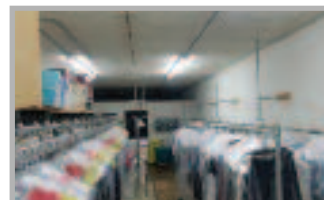
급매 Asking \$30,000



● Waltham Flower shop

오너가 20년을 운영, Main St 에 위치, 꾸준히 잘 되는 비즈니스, 단골 손님을 많이 확보

Asking \$100,000



● 드랍오프 세탁소

30년간 성업중인 드랍 오프 세탁소 매매, 안정된 고객과 수익, 주인 은퇴, 좋은 위치, Marblehead, MA 1700 SF.

Asking \$50,000



● 미용실(hair Salon)

잘 꾸며진 성업중인 미용실 매매, 1200 SF, 안정된 고객과 수익, Lexington Lots of parking

Price Reduced
Asking \$80,000

한반도 평화통일 오행시 공모전

응모방법: <한반도 평화>, <한반도 통일> 문구로
오행시 개인당 하나의 주제로 응모
(예: 개인이 각각의 주제로 응모할수 없습니다)

응모대상: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 동포

응모기간: 07/16/2021~07/28/2021 오후 5시
아래 이메일 주소로 응모

상금내역: 1등 1명 \$100, 2등 2명\$50
3등 40명 \$20

응모문의 및 보낼곳: 김도운 준비위원장(413.461.0138)

E-mail 주소: bostonnuac2020@gmail.com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간편하고 신속한 주택 융자

안녕하세요, 켈리 김입니다. 개인주택을 꿈꾸는 모든 분들은 자신의 여러 상황 때문에 개인주택 소유의 꿈을 접기도 합니다. 20년간 겪어온 많은 모기지 대출 경험으로 완벽한 대출매칭을 설계해 드립니다.

현금 인출

모기지 재 융자

후회없는 최상의 결과로
만족시켜 드립니다.

낮은 이자율

사전 승인

상담 및 신속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주세요.

617.733.5014

Testimonial

최근에 켈리씨의 도움으로 보스턴에 집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사는것도 mortgage를 얻는것도 모두 처음이었던 저에게 켈리씨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모든것이 처음 겪는 일이라 모르는것도 많고 질문도 많았지만, 켈리씨가 항상 친절하게 대답해주시고 설명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 평일, 주말 가리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 빠르고 쉽게 대답해주시고 바로바로 일을 처리해 주셔서, 제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편하게 융자도 받고 제가 원하는 집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시기에 모든것이 비대면의 형태로 진행되었는데도 Radius의 안전한 시스템과 켈리씨의 상세한 도움과 설명으로 안전하게 모든걸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시 필요한 융자를 구하실때 켈리씨와 같이 일하신다면 정말 후회 없으실겁니다. - S. Oh



Diana Yeji Kim
Boston Premier Realty
Phone 617.271.2037

최근 부동산 에이전트 다이애나 김의 도움으로 원하던 Bedford 지역에 집을 구매했습니다. 집을 사는것도 대출도 처음이라 모든게 걱정이었던 저에게, 다이애나씨는 항상 친절하게 차근차근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정말 밀착해서 케어를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와서 제가 offer를 했을때, seller와의 negotiation하는데 있어서 다이애나씨의 탁월한 능력과 솜씨가 아니었다면 다른 입찰자들을 제치고 제가 원하는 집을 구매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집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융자금을 구하는데 있어서도 제 financial need 에 가장 적합한 loan officer 를 소개시켜주시고 팀으로서 협력해서 저를 가까이서 도와주셔서 그것도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이애나씨가 늘 구매하는 저의 입장에서 모든걸 생각해주시고 진행해주셔서 일을 같이 하는 내내 신뢰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다이애나씨 덕분에 저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집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S. Oh



켈리 김 Licensed in MA, NH, RI, FL, NJ
Kellie Kim Thielen

주택대출 전문가

nmls #2027241

617.733.5014

kkimthielen@radiusgrp.com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 식당 온라인 오더와 온라인 페이먼트를 한자리에서 해결
- 헤어와 네일 살롱의 온라인 예약과 온라인 페이먼트를 컴퓨터로
- 다양한 옵션을 완비한 디펜더블 컴퓨터로 간단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살롱
온라인 음식 주문과 지불 epipay™	온라인 예약 관리 epiday™
온라인 매장 관리	온라인 매장 관리
고객 관리	고객 관리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GIFT CARD 프로그램	GIFT CARD 프로그램
종업원 관리	종업원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Dependable Computer is an authorized independent reseller of United POS Solutions, Inc."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hony (Dubleu) Parish (Korean Church)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 유튜브 채널주소
<https://bit.ly/2j16ZdT>

Contact: stadparish@gmail.com 617-538-2711

45 Ash St, Newton MA 02458 / 617-668-2711
stadparish@gmail.com / stadparishchurch.org
www.facebook.com/stadparish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총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중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원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s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자신을 보호하면, 타인도 보호합니다.

나 자신과 주위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6피트 거리를 유지하며, 차례가 되면 백신을 접종받으십시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더 쉽게 퍼지고 있습니다. COVID 확산을 늦추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동안, 필요하신 물품을 최대한 안전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cdc.gov/coronavirus 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경계선

오세경
(전직 보스톤 의대교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경계선이 있다. 대개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지만 인위적으로 생긴 것도 있고, 때로는 이런 인위적인 경계선이 자연으로 만들어진 경계선보다 더욱 견고한 경우도 있다. 그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우리 한국의 휴전선일 것이다. 미,중소가 한반도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은 작은 새우등이 터진 것인데, 이 경계선은 과거 70년 가까이 서로 굳게만 지키고 있어서, 이 분계점을 계기로 하여 3차 세계대전이 터지지 않는 이상, 이 경계선은 좀처럼 쉽게 무너질듯하지 않다. 이와같이 국경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인류의 비극은 한두곳이 아니다. 오늘은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따로하고, 우리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 또는 과학적인 분계점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한다.

(가) 하늘과 바다와 땅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바다와 땅, 그리고 하늘의 분계점을 고려해 보자.

문명생활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의 온난화는 북극의 얼음을 점차로 빨리 녹이고 있는데, 만일 이 얼음산이 모두 녹으면 바다의 수면

이 적어도 6-7m가 상승하리라고 한다. 이러한 높이는 적어도 4층의 건물의 높이에 해당된다. 이 정도의 수위가 되면, 태평양이나 인도양에 있는 작은 섬들은 물속의 왕국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남부의 해안도시, Charleston, Houston, New Orleans 등도 바다물에 침수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반면에, 과거에 얼음의 왕국이었던 쏘련의 도시들은 점차 인간이 생활하기 쉬워져서, 현재의 모스크바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있는 도시로 변화했다고 한다. 양극의 얼음이 녹음에 따라 이곳에 숨어있는 지하자원을 개발하려는 국제적인 노력도 점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근대문명의 부산물은 비단 이산화탄소만이 아니다. 우리가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여러종류의 플라스틱 제품은 바다에 버려져 거북이나 고래같은 해양생물을 질식사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쓰레기의 오염문제는 바다속 깊이 100KM속에서도 발견된다 하니, 이런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한 경지에 이르렀다. 중국은 13억 인구를 부양하기 위하여 한국 서해의 해양수산물들을 씹쓸이 해가고 그들의 쓰레기는 바다에 버려져 남한의 어부들이 이것을 채

리하는데 골머리를 앓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일회용 플라스틱제품을 물쓰듯하는 남한사람들의 생활 양식도 중국인들의 만행이나 별 차이가 없다. 상인들은, 장사의 이득이 얼마 안되는데 값비싼 종이제품을 쓸수없다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마구 사용한다. 택배업이 비교적 잘 발달된 한국에서는 요식업계에서 음식을 배달해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더구나 코로나의 판데믹은 이러한 생활 양식을 더 증폭시키게되어, 이로 인하여 생긴 플라스틱 쓰레기는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쓰레기가 결국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를 염려하는 사람은 드물다. 미래야 어떻게 되든, 그저 현재에만 잘 먹고, 잘 입고 즐겁게 살면 된다는, 극히 근시안적인 극락주의의 한국인 생활 철학이 어찌면 한국사회가 노벨수상자를 배출할수 없는 이유가 아닌가 염려된다.

여기서 잠깐 왜 남한 사람들이 염원하는 노벨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잠시 생각해 보자. 노벨수상을 받으려고 하면, 우선 그에 합당한 중요한 과제를 찾아야 하는데, 현재의 남한은 한국전쟁이 끝난지 거의 70년이 되

도록 그러한 과학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지 못했다. 설령, 외부에서 좋은 과제를 찾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10년 내지 40년의 오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이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노벨상을 탄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현재의 남한에서는 이렇게 오랜 기간을 두고 연구에 전력을 인력과 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근대에는 기초과학에 진출하려는 학생수도 상당히 줄고 있다고 하니, 남한에서 노벨수상자를 배출할 확률은 더욱 더 희박해 가고 있다. 물론 이미 의학이나 과학계에서 큰 괄목할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인재가 많으나, 기술적인 것을 향상하는 것 만으로는,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특허를 통하여 경제가 윤택해질수 있지만, 노벨수상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지구의 오염문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 1960년대에 달을 탐사하는데 성공한 이후로 우주를 탐사하는 노력은 활발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우주 공간에서 우주정거장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6개월내지 1년의 생활을 지탱하는 우주인까지 생겼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이곳에까지 인간이 거주할 세계를 확장한 것만은 사실

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많다고 한다.

근대에 와서는 정부나 개인이 이런 지구상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켜 놓았다.

이런 문제를 이미 예측했는지, 18세기 불란서의 자연주의자 잔 자크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고 주장한 그의 외침이 새로와진다.

이미, 돌이킬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지구의 환경오염을 알아챈 일부의 기업인들은, 지구 이외에 사람이 살수 있는 다른 항성을 탐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와같이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항성은 좀처럼 찾아지지 않고 있으며, 또 설령 우주안에서 그런 항성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도달하는데는 무한한 재력과 오랜시간을 소비함으로써, 이것은 마치 아합선장이 자기의 다리를 물은 상어를 잡으려다가 결국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마는 모비 딕과 같은 불운의 모험에 그칠 것이다.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42) 워런 버핏(Warren Buffet)의 투자 조언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인생을 살아가며 소수의 몇 가지를 바르게 하면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많은 것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워런 버핏은 조언한다. 일반 투자자는 투자를 잘(?)하려고 한다. 간단히 말해서 대박 나는 투자를 기대한다. 이것은 잘못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잘못된 투자를 우선 하지 말아야 제대로 하는 투자로 이어진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똑똑하고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이 우선이지 지적인 능력은 아니다."라고 버핏은 말한다. 대부분 잘못된 투자는 감정에 의한 판단과 결정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지만,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돈에 연관된 감정은 더욱 더 어렵다. 투자하며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하는 워런 버핏의 투자 조언을 몇 가지 소개한다.

*주식시장 속보 뉴스(Breaking News)는 멀리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이유로 주식시장은 오름과 내림을 반복한다. 짧은 기간의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림이 크지만, 몇 년을 지나고 나면 꾸준히 상승한 주식시장을 기대할 수 있다. 주식시장 역사가 분명 보여준다.

*무작위(Random)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조심

인간의 본성은 무작위로 발생하는 일이나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무슨 이유를 첨부한다. 주식시장이 10% 하락하면 하락한 이유를 '생산 통계 하락', '변형된 코로나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진정한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무작위로 일어나는 사건에 설명을 접하다 보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앞으로 생산 통계가 하락하면 주식시장이 하락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변수는 거의 무한하기에 이러한 예측이 맞을 확률은 거의 없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긴급 뉴

스가 나온다. '주식 대폭락' 등을 주제로 한 비관적인 소식이다. 비관적인 소식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시선을 모으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신문, 방송, 등 모든 매체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 돈(광고 수입 등)을 벌 수 있다.

*강력하고 확실하다는 의견

방송 매체는 확신에 찬 의견을 선호하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라는 의견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주식 분석가는 더욱 큰 소리로 말한다. 심리학자인 필립 테트릭의 연구(The Forecaster and the Dart-Throwing Chimp, Philip Tedlock, Aug 2, 2016) 결과에 의하면 주식 분석가 중에서 미래 주식 가격이 얼마인가를 확신하는 분석가들의 예측 성적이 가장 나쁘다는 결론이다.

일반 투자자는 이러한 사람보다는 자기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과거의 잘못으로 배운 것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때 확신보다는 확률을 말하는 사람

의 의견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의견에 흥분되지는 않지만 제대로 하는 투자에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자만심(Over Confidence)이다. 개별적인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그 회사의 상품, 관련된 기사, 미디어에서 언급하는 내용, 등으로 회사를 잘 이해한다고 착각한다. 같은 계통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는 더욱 더 그러하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가 알고 있는 회사 정보는 다른 사람도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일 수 있다.

올해 버핏 회사의 주주총회에 버핏은 다음을 언급했다. 어떤 특정한 회사에 투자 혹은 데이 트레이딩으로 우연히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 초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20개 회사가 현재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에 그 회사의 존재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

워런 버핏은 '투자의 위험이란, 당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면서 투자할 때부터 시작된다.' 라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1세 풍월주風月主 선품공善品公(2)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김선품은 634년에 풍월주의 위에 올라 4년간 화랑도를 이끌다가 637년에 부제로 데리고 있던 양도良圖에게 그 직위를 물려주고, 이미 상선으로 내성에 들어가 있던 김예원의 천거로 예부에 들어가 벼슬을 하였다. 그러다가 643년 선덕여왕의 명을 받고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불행하게도 거기서 병을 얻어 귀국하여 그 해 사망하였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야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자 왕도 슬퍼하며 그의 작을 아찬(6등급)으로 올려주었다. 졸지에 청상과부가 된 보통은 자녀 넷을 양육하며 홀로 살았다. 김선품은 장녀 자눌慈訥, 차녀 운명雲明, 삼녀 야명夜明과 외아들 순원順元을 아내 보통에게 맡기고 떠났다. 아마도 그때 막내 순원은 유아였을 개연성이 크다. 화랑세기의 기록에 보면 문명태후가 아이(선원전군仙元殿君)를 낳았고 보통에게 젖을 먹여 줄 것을 청한 기록이 나온다. 이때가 언제였는지 기록은 없다. 문명태후는 문명왕후, 즉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왕비이자 문무왕 김법민의 어머니이다. 또한 김유신의 동생이다. 그런데 김선품이 죽은 해인 634년에는 선덕여왕이 재위 하고 있었다. 김춘추는

654년에 왕위에 올랐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선원仙元인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그들(김춘추와 문희)의 아들이란 기록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전군殿君이란 기록이다. 전군은 왕의 후궁에게서 태어난 아들과, 왕후가 왕이 아닌 남자로 부터 낳은 아들을 일컫는다. 즉 '선원전군' 은 문명태후가 남편인 김춘추가 아닌 다른 남자로 부터 선원을 낳았기에 '전군'이란 존호가 붙어있다. 그럼 과연 선원전군은 언제 태어났는가? 무열왕이 사망한 후일까, 생존시였을까? 무열왕 김춘추는 602년에 태어나서 661년에 사망하였다. 문명태후(문희)는 681년에 사망하였는데 출생년도의 기록이 없다. 다만 유추해 볼 수는 있다. 큰오빠 김유신이 595년생이고 둘째 오빠 흡선이 598년 생이다. 언니 보희와 문희의 출생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그들이 세살 터울이라면 문희는 604년생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김춘추와 문희는 626년에 장남 문무왕 김법민을 낳았다). 그렇다면 무열왕 김춘추가 661년에 만 59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당시 문명왕후는 57세 가량이었다. 여성의 가임기를 고려해 봤을 때, 선원전군은 김춘추가 살아있었을 때 문명왕후가 다른 남자로 부터 출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선원의 기록을 보면, 선원仙元이 아찬(6등급)의 관등으로

신문왕 10년(690년) 2월에 원사元師의 후임으로 중시中侍(시중)가 되어 약 2년 6개월간 재임하였고, 그의 후임으로는 원선元宣이 692년 8월에 그 위를 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344) 신라의 시중은 진골 귀족의 대표자인 상대등을 견제하기 위해 진덕여왕 재위시 처음 시행된 관직이다. 초대 죽지竹旨를 비롯하여 13명의 시중이 선원仙元 이전에 재임하였는데 기록의 내용과 문맥, 그리고 그들의 관등을 봤을 때 모두가 고령이었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다. 전임 시중에 비해 비교적 낮은 관등으로 시중에 오른 선원仙元이었지만 젊은 나이는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즉 선원이 시중에 오를 때 50세라 하여도 640년생이고, 60세라면 630년생이다. 즉 김선품이 사망한 해인 634년에 선원전군이 태어났다면 그는 56세에 아찬의 관직으로 시중에 올랐다. 그렇다면 문명왕후 문희는 왕후가 되기도 전에 이미 김춘추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추론이 형성된다. 그리고 김춘추가 654년 제29대 왕위에 오르고 문희가 왕후가 된 뒤에 선원은 전군殿君의 존호를 받았을 것이다. 화랑세기에 기록된 "그때 문명태후가 선원전군仙元殿君을 낳고... 하략"의 기록은 아마 문명태후가 죽기 전에 김유신이 이미 화랑세기를 집필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고, 또한 태후로 20년간 살다가 681년에 사망했기에 '태후'로

기록을 한 것이지, 여성의 가임기와 선원의 나이를 유추해 봤을 때 태후의 신분으로 선원을 출산했다고 볼 수는 없다.

김선품과 보통 부부가 낳은 자녀들이 화랑세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후에 선품공의 딸 자의慈義가 문무제의 후가 되자 파진찬으로 추증했다. 공의 차녀 운명雲明은 예원공의 아들 오기昊起에게 시집갔다. 3녀 야명夜明 또한 문무제를 섬겨 궁주宮主가 되었다. 외아들 순원順元은 높은 지위에 올라 이름을 날렸다. 처음 공이 죽고 보통이 혼자 살았다.]

선품은 일찍 죽었지만 장녀 자의가 문무왕의 왕후가 되면서 4등급인 파진찬으로 추증되었다. 선품의 처 보통도 나중에 태종무열왕의 아들인 당원전군元殿君을 낳게 된다. 21세 선품공전의 기록으로는 당원이 정확하게 누구의 자식인지 기록이 없는데, 26세 진공전에는 당원의 부모가 등장한다.

344) 원래 이름은 중시中侍였으나 747년(경덕왕 재위시)에 집사부執事部의 장관의 관직으로서 시중으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성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집 구매 전에 자신에게 물어야 할 3가지 질문

만약 지금 집 구매를 생각하고 있다면 주변에서 많은 조언을 받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모든 조언이 본인의 필요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정보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이 집을 구매하기에 좋은 시기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본인에게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1.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잠시 재정적 측면은 잊어 버리고 왜 지금 내가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지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재정과는 상관없는 다른 이유가 집을 사려는 이유임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realtor.com의 조사에 따르면 잠재적 바이어의 73%는 좋은 학군에서의 집 구매가 중요한 요인이며 이유라고 한다. 이 보고서는 하버드 대학 (Harvard University)의 주택 연구 공동 센터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에서 미국인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가장 큰 네 가지 이유는 돈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아이들을 키우고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 살기 원함
- 나와 내 가족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역에 살기 원함
- 가족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을 위함
- 내 마련을 통해 주거 공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

집 소유는 무엇을 의미하며 나와 내 가족이 비금전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집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현재 주택 가격의 추세가 어디로 향하고 있나?

각 주택 바이어가 있는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주택 구입을 계획한다면 현재 내가 원하는 지역(Town)의 주택 가격의 추세가 어떤지를 꼭 확인하고 이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현재 모기지 금리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

이고 있나?

주택 구매자는 주택 가격에만 신경을 쓰면 안되고 100% 현금으로 구매하지 않는 이상 꼭 모기지 이율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기지 기간이 보통 30년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도 장기적으로 내가 지불해야 할 총 이자비용에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집 구매시기 결정은 나와 내 가족이 해야 하며 위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그 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7월 18일 - 7월 24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거두어들일 수 있는</p> <p>●운수: 열심히 달려온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더 큰 복이 들어옵니다. ●금전: 예전에 배웠던 것을 거두어들이는 때가 왔습니다. 돈이 들어오게 되는 운이니 주머니가 두둑해 질 것입니다. ●애정: 진정한 인연은 처음 본 순간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가슴으로 느끼는 상대를 만날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9, 23일 길일. 18, 21일 주의.</p>	<p>소띠 다시 찾을 수 있는</p> <p>●운수: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새롭게 계획을 세워할 때입니다. 희망하는 것이 있으면 이번에는 용기를 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 나갔던 돈이나 잃어버렸던 돈을 다시 찾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돈도 들어올 것입니다. ●애정: 망설이던 마음을 잡고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다가갑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0, 24일 길일. 19, 22일 주의.</p>	<p>범띠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p> <p>●운수: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그 누구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해보기도 전에 스스로 오르지 못할 나무라 단정 짓지 마세요. ●금전: 바라는 일이 쉽게 성사되지 않고 지연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 이루어질 것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애정: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서 실망하겠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8, 21일 길일. 20, 23일 주의.</p>
<p>토끼띠 때로는 느슨하게 해주는</p> <p>●운수: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때에는 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걷는 첫 걸음이 많은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금전: 뿌린 대로 걷는다는 말처럼 과거에 베풀거나 쌓았던 덕으로 이익이 생깁니다. ●애정: 줄을 너무 잡아당기면 끊어지게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물론이고 특히 부부나 연인사이에 때로는 느슨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8, 22일 길일. 21, 24일 주의.</p>	<p>용띠 인생에 다시없을 기회</p> <p>●운수: 인생에 다시없을 기회라고 여길 일이 생기겠습니다. 가까이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금전: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옵니다. 부동산 매매가 되거나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애정: 가족 간이나 부부간에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됩니다. 웃음꽃도 피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3, 24일 길일. 19, 22일 주의.</p>	<p>뱀띠 판단을 잘해야</p> <p>●운수: 과로하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하루 안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다음 날에 해도 되는 일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쪽같은 시간과 돈을 허비할 수 있으니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애정: 갑자기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다르게 정작 화풀이는 엉뚱한 사람에게 하지 않도록 하세요. 89, 77, 65, 53, 41, 29년생은 21, 24일 길일. 19, 23일 주의.</p>
<p>말띠 자세히 살펴보도록</p> <p>●운수: 미리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으면 성공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금전: 중요한 것이나 재물을 잃어버리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곤경에 빠져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애정: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세요. 90, 78, 66, 54, 42, 30년생은 20, 22일 길일. 18, 24일 주의.</p>	<p>양띠 멋진 사랑이 다가오고</p> <p>●운수: 나를 인정해주고 후원해주는 든든한 사람과 인연이 닿게 됩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좋은 힌트를 발견할 것입니다. ●금전: 실속이나 이익이 없을 것이라 예상했던 일이 의외의 좋은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애정: 멋진 사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좋은 짝을 만나게 되는 시기이니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8, 21일 길일. 19, 24일 주의.</p>	<p>원숭이띠 이런 저런 유혹이</p> <p>●운수: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간섭의 강도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지나친 간섭은 서로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금전: 이런 저런 유혹이 들어오니 방심하면 순간적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잘못하면 손해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애정: 후회할만한 일을 만들지 마세요. 단 한 번의 잘못된 생각이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9, 24일 길일. 18, 20일 주의.</p>
<p>닭띠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p> <p>●운수: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전체를 파악하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금전: 아쉬운 대로 현실에 만족하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감만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애정: 절실할 때에는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가 너무나 고맙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약간의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0, 23일 길일. 18, 21일 주의.</p>	<p>개띠 희망이 보이는 때로</p> <p>●운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웃게 됩니다. 소소한 일이든 큰일이든 좋은 소식이 들리겠습니다. ●금전: 희망이 보이면서 수입이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애정: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떨어져 지내거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겠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8, 21일 길일. 19, 22일 주의.</p>	<p>돼지띠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p> <p>●운수: 정리하지나 뒤따라오는 일이 걱정되고 계속해서 가자니 자주 신경 쓰이니 고민이 깊어집니다. ●금전: 자중수를 두는 격이 될 수 있으니 과감한 행동은 금물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 한 번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이상하게 보이게 됩니다.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8, 22일 길일. 20, 23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스시맨 구합니다.
T. 781-457-8198

내탁물에 있는 옷가게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을 찾습니다.
영어 가능하신분.
T. 627-543-9656(Jom)

브루클라인 6개월된 아기 돌봐주실 분 구합니다.
화. 목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T. 410-215-3301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선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헤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돌싱포맨' 탁재훈 "스튜디오와 다른 무장해제 토크 보여줄 것"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탁재훈, 임원희, 이상민, 김준호. '돌싱' (돌아온 싱글) 네 명의 꾸밈없는 토크가 오늘 밤 첫선을 보인다.

SBS TV는 13일 온라인 제작발표회를 열고 새 예능 '신발벗고 돌싱포맨' (이하 '돌싱포맨')이 오늘 밤 10시 처음 방송된다고 밝혔다.

'돌싱포맨'은 네 남자가 자신의 집을 찾아온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혼, 사업, 실패,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아픔과 경험을 공유하는 예능이다.

'돌싱포맨'의 만행을 맡은 탁재훈(53)은 이날 제작발표회에서 "스튜디오 공간에서 미리 짜인 답답한 느낌의 질문과 대답을 벗어나 더 자유로운 토크를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집에서 (촬영을) 하니까 무장해제되는 느낌"이라며 "저 또한 꾸며내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상민(48)은 "어떤 게스트가 나와도 우리 넷보단 낫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네 멤버의 세월 이야기 속에 게스트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흡수해 재밌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정말 행복하게 흡입을 것 없이 잘 사시는 분 중 일탈을 꿈꾸는 분들이 손님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와 함께 라면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슴이 뻥 뚫릴 수 있는 재미를 주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막내를 맡은 김준호(46)는 "저는 (장가

를) 다녀온 지 별로 안 돼서 약간 위축돼 있었는데, 선배님들이 철없이 사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활기차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형님들과 얘기하며 자신감이 더 붙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원희(51)는 "(시청자분들께서) 편안하게 상담받는 기분으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재석, 결국 유희열 이끄는 안테나行... "재밌는 일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민 MC' 유재석이 결국 유희열이 이끄는 안테나에 새 동지를 틀었다.

안테나는 14일 유재석과 전속계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테나는 "유재석 씨는 명실상부한 국민 MC, 국민 개그맨으로서 콘텐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열정을 바탕으로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영역을 넓혀왔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안테나가 지닌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앞으로도 유재석 씨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유재석도 "오랫동안 알아온 친한 동료들과 함께하게 되어 설레고 기쁘다. 함께 펼쳐나갈 재미있는 일들을 기대해 달라"고 화답했다.

lisa@yna.co.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보스톤코리아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된 상태를 썩었다고 말하고 발효된 상태를 익었다고 말한다. 신중하라. 그대를 썩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대를 익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다."

- 이외수 '하악하악' 중에서

세상 나이를 늘이며 좋아지는 것들이 몇 있다. 그것은 노력해서 된 일이 아니라 생각이다. 생각이 든다. 나이가 어려서는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알게 모르게 서로 견주는 일들이 있었다. 그것은 서로가 알 듯 모를 듯한 아주 미미하고 세심한 정도의 것이지만, 파장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는 생각이다. 그것이 서로뿐만이 아닌 자식의 공부에까지 미치게 되고 아이들이 대학을 입학하고 진로가 결정되면서 서로의 길이다르다는 것을 인정해가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나 싶다. 그것

은 바로 삶의 여정에서 만난 이런저런 경험으로 얻어진 지혜라는 생각을 한다. 손을 넘어 더욱 편안해지는 것 중 또 하나는 나보다 나이 든 언니들은 더욱 편안해 좋고, 젊은 동생들은 상큼한 생각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모르던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 고맙고 즐겁다. 어찌 보면 또래보다는 언니와 동생들에게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기 편하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기 편안하고 배울 것들이 더 많아 더욱 좋은지도 모를 일이다. 여하튼, 세상 나이를 늘이며 마음이 여유로워진 것만은 사실이다.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는 눈과 귀가 넓어지고 받아들이는 가슴도 넓어지니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편안하고 여유로워 좋은 이유가 되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은근히 고집이 센 편이다. 남편은 '욱'하는 성격에 고집도 세다. 남편의 고집을 이길 수도 없을뿐더러, 그 고집을 꺾을 생각은 더욱이 없다. 3월이면 결혼 27년을 맞이한다. 이렇듯 만난 지 30년이 다 되어가니 저절로 서로를 알기에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것을 배워갈 뿐이다. 결혼 후 몇 년은 서로의 영역 넓히기에 바

빠 명분 없는 싸움도 많이 했었다. 그런 시간이 있어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그저 감사한 마음이다. 서로 툭툭 던졌던 말들의 상처로 가슴에 남은 생채기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모두가 감사했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오늘이다. 그 어떤 것에 있어 자신의 선택은 중요하다. 그 결과와 상관없이 말이다.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편이나 아이들과 과도 마찬가지다. 남편은 비즈니스에 탁월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고 아내인 나는 인정을 한다. 그리고 남편 역시도 내가 좋아하는 일(글쓰기, 사진, 여행 등)에 대해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이다. 세 아이의 진로 역시도 부모로서 의견은 나누었지만, 각자가 자신의 길을 선택하도록 했다. 그것은 부모로서 방향은 잡아줄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의 길은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러할 테지만,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한다. 특별히 타국 멀리 와 사는 이민자들의 생활은 더욱이 관계의 설정과 폭과 깊이를

가능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다. 너무 가까이 오고 가면 무엇인가 속을 너무 보여준 느낌이었을까. 또한, 조금 멀리가면 너무 소원해지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으니 관계란 것은 인생에서 늘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기대나 바람이 있기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소원해지기도 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서로에게 적당한 크기의 향아리(독)를 만들며 익어가는 삶이길. 이렇듯 이 나이쯤에는 너무 큰 향아리(독)를 선택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적당한 크기의 향아리(독)를 선택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천천히 익어 발효되는 일에 더욱 시간을 들여야겠다. 무엇보다도 그 향아리에 무엇을 넣어야 할 일에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사물이 되었든 간에 나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믿음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이다. 세상 나이 오십 중반쯤에서 맞는 인생 2막은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간절히 마음을 모아본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노래 부르기



김화욱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국인은 노래하는 민족이다. 나역시 다르지 않아 이따금 운전 중에 혼자 몇구절 흥얼거린다. 요즘 자주 떠오르는 건 복음성가이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네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파송의 노래중, 고흥원작사/작곡)

어느 목사님이 전해 준 일화이다. 당시 목사님은 중고등부를 사

역하고 있었고, 청소년들의 모임 중이었다. 목사님이 권했다. '이번엔 이 중에서 가장 예쁜 여학생이 노래해봐라.' 여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심사숙고에 들어 간건 당연한 일. 그런데, 한 여학생이 고개를 들고 상기된 표정으로 소리쳤다. '어머 저는 노래 못해욧!' 可憐 스칸디나비아 반도 삼국이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와 핀란드이다. 이들 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다. '스스로 특별하거나 대단한 존재라 여기지 말라.' 한국은 사뭇 다른 모양이다. 특출나기를 바라지도 모르겠다. 일인일기一人一技라 했다만, 이젠 일인다가一人多技되는 거다. 노래면 노래, 그림이면 그림 뭐하나 못하는 것 하나 없는바. 과연 그게 가능한가? 하긴 노래방에선 서로 마이크를 놓지 않으려 애쓴다 했다.

직접 부르길 원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계속 되는지 알수는 없다. 기능기술경진대회라는 게 있었다. 한국은 매대회 선두를 달렸다. 한국인의 존재주야 대단한듯 싶은 거다. 어느 필리핀 여인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본후 한마디 했다. 한국사람들도 직접 일하네. 필리핀에선 좀체로 볼수 없는 광경이었던 바. 필리핀에서 한국인들은 모두 일을 시키고 있는 모양 인게다. 노래는 듣는것도 맛이다. 하지만 불러야 맛있 적도 있는데, 일은 시켜야 폼나는가? 교회도 일부 개방되었다. 곧 전면개방될 터인데, 모두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라. (로마서 15:11)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99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99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전상품 1년 약정

\$39.99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이힐병, '무지외반증' 심하면 수술까지

선천적 원인, 발 볼 좁은 신발 또는 하이힐 자주 신으면 발병 가능성 ↑ 보존적 치료 우선 적용, 변형 정도 및 통증 고려해 수술 시행



이번 주 휴람의료정보에서는 족부질환 중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질환인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정형외과 윤 형화과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하고자 한다.

무지외반증은 볼 좁은 신발이나 하이힐을 자주 신는 여성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어 '하이힐병' 이라고도 한다. 이 질환은 제1 중족골과 제2 중족골 사이가 넓어지면 제1 중족지 관절이 내측으로 튀어나오게 된다. 이 부분이 신발에 닿아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발병 원인은 다양하다. 선천적 원인은 발 앞쪽이 안으로 휘어져 있는 상태인 '중족골 내전', 발 볼이 넓거나 평발일 때, 그리고 과도하게 발이 유연한 경우이고 후천적 원인은 발 볼이 좁은 신발이나 하이힐을 자

주 신었을 때 발병 가능성이 크다. 무지외반증 대표적 증상은 발 내측이 튀어나오며 발생하는 통증으로 특히 맨발로 다닐 때는 잘 모르지만, 신발을 신고 걸을 때 발 내측이 신발에 닿아 자극을 받아 염증이 생겨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동반하여 제4 중족골과 제5 중족골 사이가 벌어져서 새끼발가락 쪽에도 관절이 돌출되는 변형이 생길 수도 있다.

치료는 크게 보존적 치료,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보존적 치료는 발 내측 돌출부위를 자극하지 않는 편안한 운동화를 착용하여 염증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 환자 나이, 발 변형의 정도, 환자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 등을 고려해 수술방법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발 내측으로 돌출된 뼈를 절골하여 교정한 후 근육 나사로 고정하며 짧아진 근육과 연부 조직을 늘려주는 방법으로 수술을 마

무리하게 된다. 수술 후 급성기 통증이 조절되면 수술 3월 후, 특수신발을 사용해 뒤꿈치로 딛고 다닐 수 있고, 수술 2주후, 실밥 제거와 퇴원 전 환자 주의사항 교육을 통해 적절한 방법의 테이핑 치료를 시행한다. 환자의 직업 환경, 수술 방법, 수술 전 변형 정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수술 6주가 지나면 평소하던 운동화를 착용할 수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보행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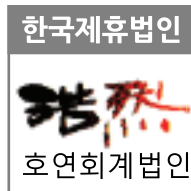
볼 좁은 신발과 하이힐 착용을 피하는 것이 예방의 기본으로 무지외반증에 평발과 중족골통이 동반된 환자는 밀창이 폭신한 신발을 신으면 도움이 되며, 요족이 동반된 환자는 발바닥 안쪽을 지지해주는 깔창을 사용하면 좋다. 발가락 양말, 교정기를 착용한다 해서 벌어진 뼈가 다시 모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교정기를 착용하고 있을 때 발볼 사이를 좁혀주는 역할이 가능해 발 내측이

신발에 닿지 않고 자극을 덜 준다면 환자 통증이 줄어들 수는 있다. 그러나 통증 유발의 근본적 원인을 교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해 자신에 적합한 예방,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지외반증”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진수 씨는
검색을 하고**



**하나 씨는
예약을 하고**

**WINNIE 씨는
백신 접종소로
향합니다**



**오늘 진수 씨가 모두 시작했습니다.
내일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12세 이상이면 모두 COVID-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친구와 가족에게 알려야 할 때입니다. 백신은 COVID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거의 100% 예방합니다.

vaccines.gov에서 가까운 백신 접종소를 찾으세요



미국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함께
아껴냅시다**

전광석화' 최재형, 대권 급발전...野 레이스 본궤도 오른다

장외주자들 거취에 영향...'경선버스 정시 출발' 탄력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이은정 기자 = 야권의 유력 잠룡으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전격적인 국민의힘 입당으로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지난 7일 정치참여선언 이후 일주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결단이다.

정치신인으로서 각종 약점을 보완할 울타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8월 하순 본격화할 국민의힘 경선레이스에 자연스럽게 이름을 올리게 됐다.

최 전 원장을 끌어들이는 이준석 대표로서는 자신의 '경선버스 정시 출발' 계획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야권의 대권 레이스도 사실상 상막을 올렸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 **최, 이준석과 팔꿈치 맞대며 의기투합 다짐**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당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이 대표와 팔꿈치를 맞대면서 의기투합을 다짐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입당을 결심한 배경에는 후보주자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 입당만 한 카드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원장은 정치경험 부족은 물론, 조직의 열세, 낮은 인지도 등이 약점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되면 이미 최 전 원장을 돕겠다고 결심한 당내 현역의원들을 중심으로 든든한 우군을 꾸릴 수 있게 된다.

당내에서는 최 전 원장이 입당만 하면 그를 도울 의원들의 규모가 당장 두 자릿수는 될 것이라는 이야기

가 많았다.

당밖의 주자군 가운데 '1호 입당'으로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순식간에 인지도를 올리는 효과도 거두게 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합당에 미적대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는 분명히 대비되는 행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정권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감하고 결단성 있는 모습으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와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오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 전 원장은 대전현충원에서 한국전쟁 영웅의 아들이자 병역 명문가 출신다운 거수경례로 정치 투신을 알리며 보수층에 강력한 인상을 심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 **야권 대권레이스도 본격화...추가 버스 탑승자는**

최 전 원장의 입당은 야권 대권레이스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 전 원장이 국민의힘의 성대한 호응을 받으며 입당하는 '그림'은 당 밖의 주자들에게도 상대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윤 전 총장, 김 전 부총리, 안 대표의 경우 '간보기'라는 조롱을 받아가면서까지 좌고우면할 여유를 부리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것과 당밖에서 몸값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준석 대표의 도움을 받아 모바일 입당원서를 작성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이 15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반기문재단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있다.

을 높이다 국민의힘 후보와 막판 단일화를 노리는 것 중에서 분명하게 선택지를 밝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 대표도 이들을 향해 '얼른 들어오라'고 손짓하며 '경선버스'에 더욱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다. 이날 경남지사 출신인 김태호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야권의 불모지인

호남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이 영입 형식을 밝히며 조만간 입당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최 전 원장께서 정당 정치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를 밝히는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당과 최 전 원장이 윈윈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의 입당은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 당내 주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윤 전 총장을 타깃 삼아 치고 빠지는 '아웃복싱'을 해온 홍준표 의원이 강한 메시지를 발신하며 링에 뛰어들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kjpark@yna.co.kr

"윤석열, 넉달만에 20%대로 하락...이재명과 접전"

리얼미터 조사, 이낙연도 7.2%p 뛰며 15.6% 3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차기 대권 지지율에서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넉 달 만에 20%대 지지율로 내려앉으며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2천36명에게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직전인 6월 21~22일 조사 때보다 4.5%포인트 떨어진 27.8%, 이 지사는 3.6%포인트 오른 26.4%로 각각 집계됐다.

두 사람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내인 1.4%로 줄었다. 직전(9.5%포인트)보다 8.1%포인트 좁혀진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도 지난 조사보다 7.2% 오른 15.6%로 3위를 차지했다.

우선 윤 전 총장의 경우 동일 조사 기준 지난 3월 29일(34.4%) 이후 30%대를 유지해왔지만 4개월 만에 처음으로 20%대로 내려갔다.

윤 전 총장은 부산·울산·경남(-12.0%포인트), 광주·전라(-10.7%포인트), 60대(-7.8%포인트), 중도층(-4.5%포인트) 등에서 주로 하락했다.

반면 이 지사는 같은 조사 기준으로 지난 5월 27일 기록했던 최고치(25.3%)를 경신했다.

특히 광주·전라(+17.2%포인트)와 함께 70대 이상(+5.8%포인트) 및 보수층(+2.6%포인트)과 중도층(+2.5%포인트)에서 선전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3.1%포인트)에선 하락했다.

이어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5.2%로 4위를 차지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2%로 5위에 랭크됐다.

이밖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3.6%, 유승민 전 의원 2.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1.7%, 국민의힘 윤화섭 의원 1.5% 등의 순이었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윤 전 총장의 경우 배우자와 장모에 대한 의혹 공세 영향을 받아 하락한 반면, 여권 주자들은 예비경선 컨벤션 효과에 따른 지지층 결집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jjin34@yna.co.kr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척추관절

나이가 들면서 오는 척추관절 퇴행성 질환...
통증을 참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있는 생활을 위하여...하루 빨리 검사해보세요!

“ 지금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보세요,
휴람은 국내수거로 부담없는 비용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관절 질환

퇴행성관절염
인대파열
연골손상
오십견
회전근개손상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등등

세포치료, 체외충격파,
관절내시경, 발목골절술,
흰다리교정술
로봇인공관절등등








척추 질환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거북목증후군
골절 등등

미세한미경디스크절제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유합술
신경성형술등등

***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기존에 촬영하신 X-RAY, MR-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사랑플러스병원(강동구 굽은다리역),
-  연세사랑병원(서초구 사당역)
-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 Tel : 070-4141-4040
-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eamkorea)
- 이메일 : huream@huream.kr
- 홈페이지 : www.hureamkorea.com





NAMU • 나무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대통령 훈장 수훈/15년 이상의 경력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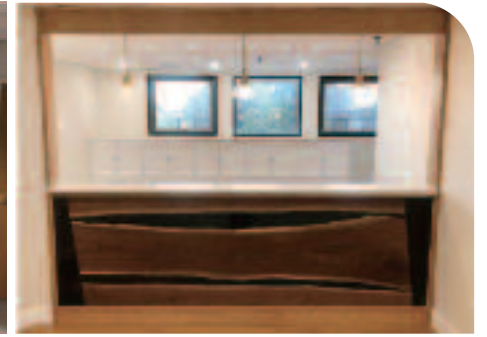
- 주방, 욕실, 방,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 집, 상점 레노베이션
- 커스텀 캐비닛, 바닥, 데크
- 원목 테이블, 가구

WHY NAMU

- ✓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 ✓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 ✓ 철저한 시간 약속과 빠른 공사



BEFORE



AFTER



무료
견적상담

www.namuma.com
info@namuma.com /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MA 전지역, NH 일부지역 공사)

THE PRO REALTY GROUP

수잔 부동산

풍부한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한인 부동산 회사

T.399.224.1512

245 First Street Riverview II 18th floor Cambridge, MA 02142



Susan Ahn

Broker & Principal

susan@prorealty.group

Kakao ID : susan1223



1

탁월한 협상

오랜경험과 전문적인 팀워크로 구성

2

바이어, 셀러

전문적 지식과 정확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

3

이주자 상담

타주 & 한국 투자 상담

4

전문적인 일처리

30년 경력 부동산전문 변호사 파트너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겠습니다!